

Jaemuhuh

國統 74-1-17

23
50

南北韓 政治 外交 軍事力量 比較의 "틀" 作成

조관용
(국립국학진흥원) 2

1974. 7.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4年度 学
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

研究機關：서울대학교 行政大学院

研究責任者：趙 錫 俊

目 次

第一章	序 論	1
第一節	研究의 目的	1
第二節	研究의 対象	2
第三節	研究의 方法	4
第二章	力量의 概念定立	7
第一節	力量의 意義	7
第二節	力量의 種類	9
第三節	目標, 業績指標, 狀況	10
第三章	組織論者 들과 効果性의 指標	15
第一節	序說	15
第二節	Basil Georgopoulos and Arnold Tannenbaum 과 James price	16
第三節	Stanley Seashore and E. Yachtman	17
第四節	評	18
第四章	政治學과 業績 (Performance) 指標	23
第一節	Deutsch 의 理論	23
第二節	評	26
第五章	體制分析의 理論과 分析의 틀	31
第一節	體制的 一般理論	31
第二節	體制理論의 比較를 構想에 의 援用	33

第六章	意思決定의 理論과 「게임」의 理論	37
第一節	理論의 內容	37
1. 序		37
2. 葛藤의 模型		38
3. 「게임」의 理論		41
第二節	評	52
第七章	力量의 總體的틀 (Over-all Framework) - 試案	55
第一節	一般模型의 作成	55
第二節	一般模型의 具體化	63
第八章	部門別 力量의 比較와 「틀」의 具體化	65
第一節	政治力量의 比較	65
1. 政治와 他下位體制와의 關係		65
2. 政治力量의 比較		66
第二節	外交力量의 比較	71
第三節	軍事力量의 比較	75
第九章	未解決의 問題와 建議	81

才 一 章 序 論

第 一 節 研 究 的 目 的

本 報 告 書 는 南 北 韓 의 政 治 , 外 交 , 軍 事 力 量 의 比 較 을 위 한 틀 (Frame work) 의 試 案 을 作 成 하 는 것 을 目 的 으 로 한 다 .

한 體 制 의 政 治 力 量 , 外 交 力 量 , 軍 事 力 量 을 體 系 있 게 , 그 리 고 實 際 用 途 에 쓸 수 있 을 정 도 로 比 較 할 수 있 는 틀 을 作 成 해 본 바 는 일 적 이 外 國 에 서 나 國 內 에 서 나 없 었 던 일 이 다 . 따 라 서 이 試 圖 가 갖 고 있 는 意 義 는 大 端 히 크 다 고 알 수 있 다 .

또 大 韓 民 國 이 처 해 있 는 客 觀 的 , 主 觀 的 인 環 境 에 비 추 어 , 北 韓 과 의 力 量 을 比 較 하 여 우 리 의 力 量 의 程 度 와 強 點 , 弱 點 을 알 고 , 補 完 의 方 向 을 알 수 있 게 되 는 것 도 바 로 서 이 런 研 究 의 結 果 에 의 하 여 이 루 어 질 수 있 으 므 로 , 이 研 究 가 갖 고 있 는 政 策 的 意 義 는 大 端 히 크 다 고 알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重 要 한 意 義 를 갖 고 있 는 이 研 究 는 反 面 에 一 連 의 있 을 수 있 는 이 런 努 力 의 初 期 의 部 分 的 企 圖 에 지 나 지 않 게 될 可 能 性 이 많 다 . 그 理 由 은 政 治 , 外 交 , 軍 事 등 을 體 制 間 에 比 較 한 다 는 것 은 問 題 의 性 質 上 巨 視 的 으 로 取 扱 될 수 밖 에 없 다 는 點 , 이 들 세 가 지 分 野 의 目 的 과 機 能 등 이 매 우 抽 象 的 이 고 , 質 的 이 며 , 보 는 角 度 에 따 라 서 定 義 하 는 方 法 이 數 없 이 있 을 수 있 다 는 點 , 自 由 民 主 主 義 體 制 國 家 間 의 比 較 가 아 니 고 , 質 的 으 로 判 異 한 共 產 國 家 와

의 比較라는 點, 北韓體制에 관한 正確한 情報가 많은 경우에 求得하기 困難한點等에 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와 같은 初期的, 部分的企圖가 이런 問題를 繼續的, 專門적으로 思考하는 사람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이 研究는 또한 直接 兩體制의 比較自体를 하는것까지 試圖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分析과 判斷을 위한 틀(Framework)을 指示하는데 끌이고져 한다. 이런 틀이 完成되면 이틀을 具體化하고 現象을 틀에 代入하는 作業은 北韓問題를 專門적으로 研究하는 분들에게 委任하고져 하는 것이다. 그러나 틀을 만드는 사람은 自己가 만든 틀의 妥當性에 관한 것을 念頭에 두고 作業을 進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도 筆者가 아는 限 共產主義乃至 北韓體制에 관한 特質을 想定하면서 作業을 進行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直接 北韓에 관한 資料脚註가 없어도 北韓體制의 力量推定에 알맞는 틀을 作成하기 위하여 努力한 것으로 看做하기 바란다.

第二節 研究의 對象

南韓과 北韓의 體制를 比較한다고 하지만 政治, 外交, 軍事 등의 各下位體制의 目標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고는 무엇 때문에 相互 比較하는가 하는 것이 不分明해 진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政治, 外交, 軍事 등의 各下位體制의 目標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目標의 構想에 있어서 어느 程度 이를 長期的인 眼目에 立脚하여 볼 것인가의 問題가 내두된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런 巨視的이며 價值判斷的인 要因이 많이 介在하는 研究에 있어서는 短期的인 것보다 長期的인 (5年以上) 視野를 갖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當場의 短期的인 予測과 比較를 위해서는 本研究의 効用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특히 北韓側의 資料가 欠缺되어 있는 現與件下에서 短期的인 予測과 判斷을 한다는 것은 매우 危險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目標構想에 있어서 또 한가지 우리가 對象으로서 取扱해야 하는 것은 政治, 外交, 軍事의 相互關係에 관한 것이다. 假令 政治는 外交, 軍事, 其他 下位體制를 包括하는 概念이다. 다시 말하면 政治力量을 알기 위해서는 外交力量과 軍事力量, 其他 諸下位體制의 力量을 알아야 한다. 또 外交力量을 알기 위해서는 軍事力量, 政治力量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軍事力量에 있어서는 이런 關係가 成立되는 程度가 比較的 적다고 알 수 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軍事가 外交나 政治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以上の 理由에 의하여 目標構想에 있어서 政治目標, 外交目標, 軍事目標를 各々 完全分離하지 않고 서로 補完하는 立場에서 取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目標와 業績 (Performance) 과의 關係도 우리의 研究對象으로 하고저 한다. 왜냐 하면 目標를 取扱하면 그에 따르는 當然한 結果로서 目標成就度の 問題를 取扱하지 않을수 없으며, 後者가 即 業績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力量을 알아내는 方法으로서 業績을 하나의 基準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 問題가 重要視된다. 一般的인 論理는 一定한 資源과 一定한 狀況이라는 条件下에서 最短時間內에 同一한 業績을 올리거나, 더 많은 業績을 올리면 그 体制의 力量은 그만큼 더 높다고 볼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目標와 業績의 兩者에 관하여 可能한 限 많이 指標를 찾아서 現實에 適用할수 있게 하고저 하며, 指標中에서 量化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提示하기로 하고, 質的인 指標에 대한 判斷, 各指標間의 加重值 부여 等에 관하여 그 方法에 關한 建議까지도 모색 하고저 한다.

第三節 研究의 方法

本研究는 主로 文獻에 의해서만 했다. 文獻中에서도 特히 外國原書를 中心으로 하였고, 서술적인 著書나 論文보다도 模型定立 (Model Building) 을 主內容으로 하는 理論書들에 重點을 두었다. 그리고 理論書中에서도 特히 業績 (Performance), 效果性 (Effectiveness) 產出 (Output) 等의 部分을 重點으로 研究하였다.

力量에 해당한다고 생각 될 수 있는 英語概念인 Capability, Competence, Capacity, Ability, 等の 用語는 本研究者가 対象으로한 學問分野에서는 使用되지 않는 概念이다. 따라서 主로 위의 세가지 分野에서 類推할 수 밖에 없었다.

研究者가 対象으로한 學問分野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組織理論(共産黨 組織理論 包含), Game의 理論, 政治學, 體制分析理論等이다. 그러나 이것들 各々の 全分野를 이 研究를 위해서 檢討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위에 列擧한바와 같은 效果性, 業績, 產出等の 概念에 立脚하여 力量의 推定을 위한 「틀」의 作成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만 選擇적으로 읽어보고, 研究者는 이를 取捨選擇하고, 綜合하고, 새로 첨가 하는等の 方法에 의하여 研究하였다.

才三章 力量의 概念定立

第一節 力量의 意義

國語國文學會編 「國語새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63)에 의하면 力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일을 해낼수 있는 힘의 정도]

Webster 辭典은 力量과 類似한 다음의 諸用語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Capability:

[A feature, Condition, faculty, or the like, Capable of development]

Capacity:

[Power of receiving, containing, or absorbing]

Competence:

[Quality of being competent]

Competent:

[Answering to all requirements]

Ability

[Quality or state of being able]

[Power to perform, whether physical, moral,

intellectual, or legal capacity]

Able

[Having sufficient power, skill, or
resources of any kind to accomplish
an object]

國語나 英語에 있어서의 共通點은 力量이란 어떤 目的 또는 目標을 前提로 한다는 것이다. 國語의 경우에 「일을 해낼 수 있는」이라고 할때에 「일」은 「힘」이 使用되어야 할 目標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英語에 있어서도 「to accomplish an object」라고 할때의 object 와 「requirements」가 目標에 該當하며, 이를 明示하지 않은 Capability, capacity 의 定義도 默示的으로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國語, 英語의 共通點은 力量이란 能力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國語에 있어서의 「힘」 英語에 있어서의 「Accomplish」, 「Power to perform」, 「Answering to」 등은 이를 의미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힘」은 그의 程度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國語定義는 이를 明示하여 「정도」라고 하고 있다, 英語는 大體的으로 이를 明示하지 않고 있지만 「Power」, 「Quality」 등의 用語는 쉽게 連續線 (Continuum) 上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 力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力量이란 한개의 体制가 自己가 내세운 諸目標를 成就할 수 있는 能力의 程度를 말한다」

第二節 力量의 種類

以上과 같은 定義와 그앞에서 우리가 言及한 바에 의하여 力量의 種類를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을 것이다.

目標의 長短에 의하여 :

長期力量, 短期力量

力量의 程度에 의하여

많다. 적다.

以上の 두가지 側面의 分類에 의해서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수도 있을 것이다.

長期力量이 많다.

長期力量이 적다.

短期力量이 많다.

短期力量이 적다.

한体制에 대하여 長短期力量을 同時に 適用하면, 다음의 네가지 경우를 볼수 있을 것이다.

長期力量 많으나 短期力量 적다.

短期力量 많으나 長期力量 적다.

長期力量도 많고 短期力量도 많다.

長期力量도 적고 短期力量도 적다.

다음으로 力量이 顯在的이란 潛在的이란의 問題가 있다. 이에 따라서 顯在的의 力量과 潛在的의 力量으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力量이 顯在的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大部分의 경우에 潛在的의 力量이 實際로 發揮되는 過程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實際로 發揮된 力量은 目標의 成就 또는 業績과 區別하여 判別하기가 大端히 困難하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同時에 두가지의 것을 시사하여 준다. 첫째로 大部分의 경우에 力量이라고 하는 것은 潛在力을 意味하며, 따라서 潛在的의 力量만을 意味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顯在的의 力量이 事實上 業績과 같다고 하는 것은, 業績을 潛在的의 力量測定을 위한 指標로 간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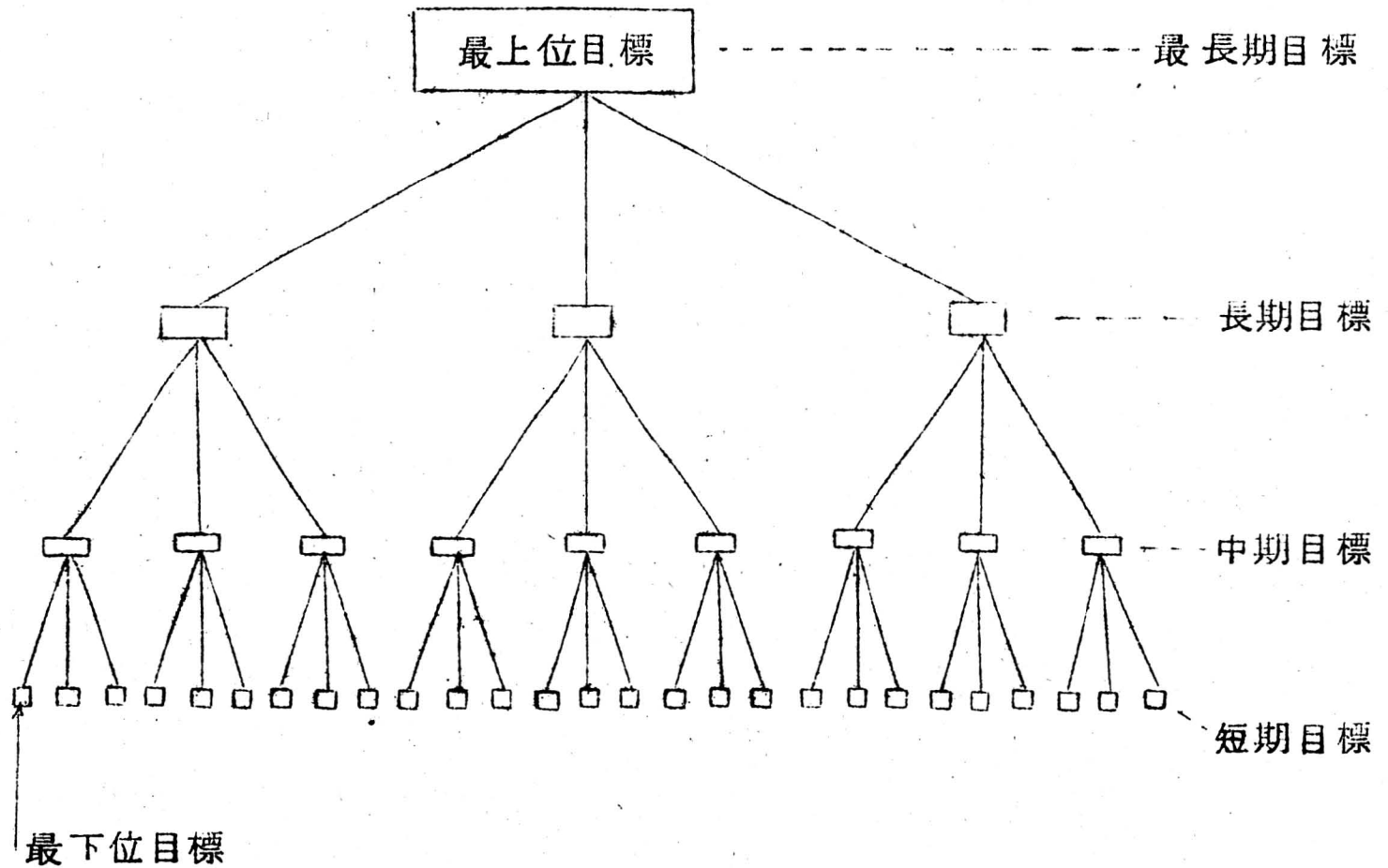
第三節 目標, 業績指標, 狀況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力量의 추정은 目標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 節을 달리하여 이를 좀더 詳細히 考慮하고자 한다.

첫째로 目標는 가장 最上位의 것으로부터 始作하여 가장 最下位의 것에 이르는 階序形式을 取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나

次下位の 目標는 次上位의 目標의 具体化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一般的으로 上位目標가 될수록 그가 「카바」하는 期間의 길이도 길어지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上位目標가 될수록 그內容이 全的으로 價值判断으로 構成되어 있고, 따라서 量化하기가 困難하다.

또한 各級의 目標를 推定하는 方式은 上位目標에서 始作하여 이를 實踐하기 위한 論理的인 手段을 構想하는 下向式과 下位目標에서 始作하여 이를 歸納함으로서 上位目標를 構想하는 上向式이 相

互補完的으로 併用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目標把握方法에 있어서 公言된 目標와 真意의 目標를 區別하여서 생각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真意는 숨겨져 있고 公言된 目標가 마치 真意인것 같이 천명된다. 이것은 특히 共產主義國家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알수 있다. 이들 國家에서 많은 경우에 公言된 目標(例, 民主主義)는 真意(共產主義)를 實現하기 위한 下位目標의 口實을 하는 것이다.

各級の 目標마다 그의 達成程度와 內容 또는 業績의 指標(indicators)를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指標들은 앞에서 말한것처럼 上位目標일수록 量化할수 있는 것이 적고, 下位目標일수록 量化할수 있는 것이 많다.

目標라는 것은 狀況(不利한 狀況, 有利한 狀況, 無關한 狀況으로 나눌수 있음)의 支配를 받으면서 決定된다고 알수 있다. 이것은 첫째로 南韓과 北韓이 處하고 있는 狀況이 다르다는 점때문에 目標構造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共通的인 目標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大韓民國의 政治體制의 目標構造와 北韓의 目標構造間에는 共通點以外에도 많은 差異點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狀況이라는 것은 항상 變化하는 것임으로 위와 같은 目標構造도 이에 따라서 變한다고 알수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目標가 「카바」하는 期間이 길수록 狀況變化의 影響을 덜 敏感하게 받는다 고 알수 있다. 따라서 業績指標나 目標指標의

詳細한 統計를 求得하기 困難한 北韓의 體制를 說明하기 위해서는 短期目標은 除去하고 長期目標以上만 對象으로 하여야 力量 推定이 可能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reasoning 을 本研究의 對象인 「틀」의 구상에 適用시키려면 例를 들어 政治體制의 경우에 이것의 目標構造를 階序的으로 한쪽에 配列하고, 다른쪽에는 業績指標를 羅列하는 形式을 취할수 있을 것이다. 꼭 같은 作業을 外交體制, 軍事體制에 관해서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圖表가 完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自体가 곧 한體制의 力量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圖表作成의 資料가 된 目標구상의 指標다. 業績의 指標가 全部 過去의 事實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가 研究에서 興味の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將來의 不確定한 時點에 가서 相對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適切하게 目標를 修正하고, 이를 業績에 의하여 達成할수 있는가의 潛在力量이기 때문이다. 過去의 事實은 將來 予測을 위한 主된 資料는 되지만 全部의 資料는 될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過去의 事實을 通해서 作業을 進行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政治, 外交, 軍事의 各下位 體制別로 以上과 같은 圖表를 作成하는 것은 必須的인 作業이라고 斷言할수 있다.

才三章 組織論者들과 効果性の 指標

第一節 序 說

이 곳에서 効果性 (effectiveness) 이라고 하는 것은 目標의 達成度를 意味한다.

따라서 効果性の 概念은 우리가 앞에서 내세운 業績과 大同少異 하다고 할 수 있다.

組織論者들은 一般的으로 業績이라는 概念보다 効果성을 더 많이 使用하고 있다.

組織論者들이 다루는 組織들은 多様하지만 그중에서도 特히 企業 組織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어야 할 政治, 外交, 軍事는 明白히 企業組織과는 다른 分野이다. 그럼에도 不拘 하고 組織論者들의 効果성에 관한 指標를 이곳에서 맨 처음에 取扱 하는 理由는 政府나 軍隊도 各々 組織이라는 面에서는 企業組織과 共通되고 있으며, 또 業績指標에 관하여 가장 많이 研究한 사람들이 바로 組織論者들이기 때문이다.

以下에서는 이問題를 다른 組織論者別로 그 指標를 提示하고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서 檢討하려고 한다.

第二節 Basil Georgopoulos and
Arnold Tannenbaum 과
James Price

1 . Georgopoulos and Tannenbaum (" A study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Vol.22, No5, Oct.1957,
PP. 534-40)

Georgopoulos 와 Tannenbaum 에 의하면 効果性を 測定하기
위한 指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

生産性 (Productivity)

融通性 (Flexibility)

緊張과 葛藤의 欠如 (Absence of Strain and Conflict)

이들 指標들은 各々 独立的으로 組織目標의 達成에 積極적으로 寄
与한다고 생각한다 .

2 . James Pri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An Inventory of Propositions, Homewood, Ill., Richard
D.Irwin, Inc, 1968)

Price에 의하면 以下와 같은 것들이 効果性的인 指標라고 한다.

組織員인 個人에 관한 指標

生産性 (Productivity)

士氣 (Morale)

同調性 (Conformity)

適応性 (Adaptiveness)

制度化 (in Stitutionalization)

意思決定体制의 正統性에 대한 受諾

(Acceptance of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組織自體의 特性에 관한 것

分業의 高度化 (high degree of division of labor)

專門化된 部省組織 (Specialized Departmentalization)

生産品의 一貫 Assembly 作業 (Continuous Systems of assembling output)

組織의 自律性的의 提高 (high degree of Organizational autonomy)

組織內에서의 意思傳達의 効率性 (high rates of commun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第三節

Stan ley Seashore and E.yuchtman,
("Factorial Analysi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2, No.3 Dec., 1967, PP.377-395)

Seashore 와 Yuchtman 은 조금 다른 角度에서 이問題를 取扱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指標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事業量 (Business Volume)
生産原価 (Production cost)
新入組織員의 生産性 (New Member Productivity)
組織員年令의 年少化 (Youthfulness of Members)
事業特性 (Business Mix)
人力增加率 (Manpower Growth)
管理能力의 強調 (Management Emphasis)
維持費 (Maintenance Cost)
組織員生産性 (Member Productivity)
市場侵透率 (Market Penetration)
創意 (initiation)
計劃 (Planning)
信賴性 (reliability)

第 四 節 評

以上 여러사람들이 提示하는 組織의 効果性에 관한 諸指標들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觀察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비교적 여러사람이 共通으로 提示하는 指標는 生産性뿐이다.

둘째 類似한 것의 例의 첫째는 緊張과 葛藤의 欠如 또는 同調性이며, 둘째는 融通性 乃至 適應性이다.

세계로 企業組織에 特殊한 概念으로서 우리의 研究對象인 政治, 外交, 軍事의 어느 것에도 適用하기 困難한 것의 例로 「生産品의 一貫 Assembly 作業」 「事業特性」 등을 들 수 있다.

네째로 企業組織에 特殊한 概念이지만 우리의 研究目的에 活用할 수 있는 것들의 例로서 「事業量」과 「市場侵透率」을 들 수 있다.

事業量 (Business Volume)은 政治, 外交, 軍事에 있어서도 予算의 內訳과 規模라는 概念으로 代置할 수 있다. 予算이야 말로 力量把握을 위한 가장 重要한 指標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市場侵透率은 이를 政治体制의 경우에 内部的側面에 대해서 使用하기는 困難하다. 그 理由는 共產國家는 各下位体制마다 그 社会內에서 分野別로 独占을 하는 것이 特殊이며, 또 公共部門은 一般的으로 自由國家에서도 市場概念을 適用하기가 困難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一但 一國의 對外的問題에 이르면 이를 競争, 協商關係, 支持獲得과 支持부여의 關係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外交分野에서는 市場侵透率의 概念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便宜上 外交侵透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效果性判斷의 指標로서 우리의 目的에 비추어 不適切한 것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例를 들어 「管理能力의 強調」는 그것이 많을수록 管理가 잘된다고 볼 수도 있고, 反對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現象이라고 判斷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애매한 해석의 余地가 있는

것은 除去해야 한다.

「生産原価」는 이를 北韓에 關하여 間接적으로나마 推理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것 같이 생각된다. 다만 후에 言及할 投入의 概念속에 包含시켜서 概括적으로 다룰수 있을런지 모른다.

「新入組織員의 生産性」도 같은 理由에 의하여 必要 없으며, 「人力增加率」은 나중에 言及할 投入의 概念속에 包含시킬수 있을 것이다. 「維持費」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取扱하면 된다.

「專門化된 部省組織」이 南韓과 北韓을 比較하는데 있어서 優劣을 가릴수 있을 程度로 差異를 發見할 수 없다. 그리고 形式的인 기구의 分化는 큰 意味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制度化라는 것도 北韓과 南韓의 比較에 있어서 주로 北韓側으로 부터의 資料의 貧困때문에 쓸수 없는 指標같이 생각된다. 「分業의 高度化」로 專門化된 部省組織」의 경우와 같은 理由에 의하여 除去한다.

以上の 觀察의 結果로서 第一次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諸指標을 내세우기로 한다.

1. 生産性..... 주로 巨視的分析을 通하여 經濟分野에 適用이 可能함.
2. 融通性和適應性·政治, 外交, 軍事分野에 適用
3. 同調性和 緊張· 주로 政治分野에 適用
4. 葛藤..... 주로 政治分野에 適用
5. 士氣..... 주로 政治, 軍事分野에 適用

- 6. 信賴性 政治, 軍事, 外交에 適用
- 7. 計劃 主로 經濟, 政治에 適用
- 8. 創意 主로 政治, 外交에 適用
- 9. 外交侵透率 主로 外交에 適用
- 10. 予算規模斗 內訳 - 政治, 軍事, 外交에 適用
- 11. 正統性 主로 政治, 外交에 適用
- 12. 自律性 主로 政治, 外交에 適用
- 13. 意見傳達의 效率性 .. 主로 政治, 外交에 適用

內

6

유

才四章 政治학과 業績 (Performance) 指標

第一節 Deutsch 의 理論

政治学徒中에서 Karl Deutsch는 近著에서 政治体制의 業績指標를 다루고 있다. (Karl W. Deutsch, Politics and Government, Houghton Mifflin, Boston, 1970)

그에 의하면 業績이란 어떤 努力의 結果로 인하여 우리가 願하는 成果를 達成했을 때에 使用하는 概念이다. 그리고 業績은 效果性 (effectiveness) 와 能率性 (efficiency) 을 包括하는 概念이다. 여기서 能率性이란 一定한 結果를 얻기 위하여 投入된 經費의 率을 말한다.

業績은 勿論 우리가 願하는 目標 또는 價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測定된다.

그런데 이때의 目標 또는 價值가 하나인가 또는 여러개인가에 따라서 政治体制間의 區別을 알수 있고, 또 效果성과 能率성의 比重의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고 한다.

한개의 支配的인 目標를 내세우는 나라는 共產主義体制의 國家라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自由民主主義國家는 여러개의 目標를 同時에 내세운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言及한 目標構造의 圖表에서 共產主義國家는 하나의 支配的인 目標를 最上位目標로 할 것이며, 民主主義國家는 最上位目標가 여러개가 될 것이다.

하나의 支配的인 目標를 내세우는 것은 民主主義國家에서도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주로 戰爭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共產主義國家는 全世界의 共產革命이 支配的인 目標이며, 이를 위하여 軍隊의 使用如何를 不問하고 항상 戰爭關係에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北韓은 南韓의 共產化가 支配的인 目標이며 이를 위하여 항상 戰爭關係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所謂 北韓의 革命基地化作業遂行過程도 戰鬥行爲로 간주한다. 北韓이 사용하는 用語들의 大部分이 戰爭, 戰鬥用語이며 過激한것도 이런 理由 때문이라고 알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개의 支配的인 目標을 내세우는 體制에서는 모든 것은 이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받쳐지고 他의 價值나 目標은 全部 從屬的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政治를 危機政治 (Emergency Politics) 라고 한다.

危機政治體制下에서는 效果性만이 重視되는 傾向이 있으며, 따라서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사기도 正当化되고 敵과의 一時的協同도 正当化된다.

그러나 危機政治體制는 長期的으로는 그것이 주는 心理的, 組織的 負擔이 매우 크다고 알수 밖에 없다. 좀더 具體的으로는 個人의 性格, 小集團들의 行動, 政府構造를 變化시키고, 歪曲시키게 된다.

또 社會內的 道德的連結關係도 파괴 시킬수 있다. 北韓이 점차적으로 一人崇拜體制로 몰고 오지 않을수 없었던 것도 共產主義理念만으로는 長期的으로 危機政治를 알 수 없었던 結果라고 볼수

있다.

· 이에 대하여 復數目標를 내세우고 이것들간의 均衡을 위하여 努力하며, 過誤의 可能性을 是認하고 修正을 試圖하는 體制를 생각할 수 있다. Deutsch 는 이 體制가 더 훌륭한 體制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業績의 指標로서 復數目標追求 및 研究能力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長期的으로는 이 體制가 더 우수한 體制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떤 政治體制에서나 主된 業績指標로 간주하여야 된다고 한다.

특히 歲出예산의 內訳을 檢討함으로서 그의 支出項目은 그 政治體制가 어떤 價値를 追求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指標라고 한다.

또한 支出項目이 全예산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變動幅을 봄으로서 어떤 方向으로 그政府의 價値觀이 變化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比率의 大幅的인 變化는 그만큼 政治的決定能力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歲入예산面에서도 課稅對象者의 重点, 公債의 發行, 借款에의 依存度, 赤子예산의 크기 등이 좋은 指標가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Deutsch 는 質的인 指標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例示하고 있다.

삶의 質: 公害度, 公安度, 清掃, 兒童營養, 醫療惠沢, 意味있는 人生을 營爲할 수 있는 정도

指導者의 質 : 指導者 및 將來指導者가 될 사람들의 成長 背景, 指導者의 性格

一般國民의 質 : 麻藥中毒者, 알콜中毒者, 自殺者의 數, 殺人事件의 數, 其他 殘忍한 犯罪의 頻度, 人種差別, 權威主義性格, 官의 暴君化, 代表的國民性 社會奉仕에의 自願度, 信賴性, 刑事制度面의 人權尊重

權威의 性質 : 意思傳達에 대한 信賴賦與度, 監視나 強要가 없는 狀況속에서 權威가 受諾되는 程度, 政治暴力, 執行府安定性

人權 : 法 앞에서의 平等, 言論自由, 集會自由, 結社自由, 宗教自由, 공포로부터의 自由

其他量基準 : 平均 生存年令 幼兒死亡率, GNP 또는 Percapita Income, 經濟成長率, 富의 配分과 均衡

第 二 節 評

以上에서 우리는 Deutsch의 理論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觀察을 할수 있다.

첫째, 그가 提示하는 業績을 基準을 크게 뉘어서 보면 以下の 여덟가지라고 할수 있다.

1. 上位目標의 單純 또는 複雜性 (危機政治의 使用頻度)
2. 予算의 內容과 變動

3. 삶 (Life) 의 質

4. 指導者의 質

5. 一般國民의 質

6. 權威의 性質

7. 人權

8. 其他量基準

그런데 以上の 여덟가지中에는 量化가 大体的으로 可能한것은 「予算」과 「其他量基準」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諸基準들은 그속에 量化할수 있는 것도 들어 있지만 大部分 質的인 判断을 要求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質的判断은 때로는 主觀性이 介入할 危險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政治体制의 綜合的業績評価를 하기 위해서는 不可避하게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도 質的인 判断基準을 받아들여 리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둘째로 Deutsch 는 政治体制의 比較에 있어서 반드시 自由民主*義体制와 共產主義國家를 公正한 立場에서 評価하는 態度를 견지하지 않은것 같다. 예를 들어 人權 (法앞에서의 平等, 言論自由, 集會自由, 結社自由, 宗教自由, 공포로부터의 自由) 과 같은 基準을 使用하면 當然한 結果로서 自由民主*義体制의 業績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以上の 諸基準의 選定에 있어서 Deutsch 個人의 價値觀이 作用한것 같다.

이런 現象도 우리는 不可避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의 學界의 現象은 共通된 比較基準에 대한 合
意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그가 扱한 基準속에 包含된 諸指標中에는 共產主義國家와
自由民主主義國家間에 그가 갖는 意味가 相異한 것이 많다. 例를
들어 삶(Life)의 質속에 있는 公害度나 清掃라는 指標는 共
産國家와 自由民主主義國家를 比較하면 單純한 量的인 面에서는
共產國家가 優勢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共產國家가 公害度が 적다
는 것은 모든 産業이 國家의 嚴格한 統制下에 있기 때문이다.

또 清掃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清掃自体의 価値보다도 清掃에
動員되는 國民들에 대한 規律과 動員의 訓練에 더 많은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單純한 表面上의 量的表現에 의하여 比較한
다는 것은 無意味하다고 알수 있다.

또 같이 一般國民의 質이라는 基準속에서의 「麻藥中毒者」 「알
콜中毒者」의 數가 共產國家가 더 적다고 하면, 이것은 「마약」이
나 「알콜」의 求得難과 國民行動에 대한 嚴格한 規制 때문이라고
알수 있고, 「殺人事件」, 「殘忍한 犯罪」 그리고 삶의 質속의
「公安度」等은 共產國家가 一般的으로 秘密警察等을 통한 억압과
공포에 의한 治安維持가 적어도 表面上으로는 더 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도 比較의 基準으로는 不適當하다고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共產國家 特히 北韓에 대해서는 以上の 諸指標의 相
當한 部分에 대해서 正確한 情報를 얻기 困難하다는 困難點 이

있다. 社会内の 犯罪統計類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求得하기 困難하고, 予算의 경우에도 數個의 經濟性質別 分類만 提示하고, 그 内訳을 發表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大分類로 發表된 그대로를 믿을수 없는 難點이 있다.

또 嚴格하게 量化할수 없는 諸指標의 경우에 있어서도 共產國家는 内部体制의 情報가 体制外部로 流出되는 것을 防止하기 때문에 例를 들어 어떤 種類의 事件이 있었다고 하여서 過然 그 回數가 얼마나 되며, 그 規模와 性格이 무엇인지 速斷하기 困難한 경우가 많다.

以上과 같은 諸考察의 結果와 本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諸指標을 우리는 내 세우기로 한다.

1. 上位目標의 複雜性 (危機政治의 使用頻度)
2. 支出予算의 經濟性質別 内訳의 變動幅
3. 指導者들의 成長背景과 性格
4. 正統性 (權威의 自發的 受諾) : 政治的 變亂事件
5. GNP와 Per capita income
6. 經濟成長率
7. 富의 都市, 農村에의 配分
8. 平均生存年令
9. 人權의 幅

第 5 章 体制分析의 理論과 分析의 틀

第 1 節 体制의 一般理論

体制의 理論에 의하면 体制란 그内部에 여러가지 要素들을 갖고 있고, 이들 要素들은 相互 連関下에 움직이며, 体制는 환경으로부터 一定한 投入(input)을 얻어서 이 要素들의 相互作用인 轉換過程(Conversion Process 또는 through Put)을 거쳐서 一定한 産出을 낳게 된다. 이 産出中의 一部는 다시 体制에 대한 投入으로 環流하는 Feedback의 過程을 밟게 되고 나머지는 他体制를 위한 投入의 機能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概念은 하나의 体制와 다른 体制를 区别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한다. 換言하면 体制에는 境界(Boundary)가 있고 이 境界内部는 研究对象인 体制이고 境界外部는 여러개의 体制로 構成된 環境으로 看做된다.

体制内部를 構成하는 各要素들은 이를 다시 下位体制로 看做할 수 있고, 이들 下位体制들은 다시 上位体制나 마찬가지로 投入, 轉換過程, 産出의 機能을 하게 된다.

各級의 下位体制들의 機能을 통하여 上位体制는 維持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各下位体制들間의 關係는 均衡을 維持하는 狀態에서 上位体制는 가장 完全한 機能發揮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近来에 와서는 이러한 均衡狀態의 概念은 上位体制의 靜的, 現狀維持의 狀況을 前提하는 것이라는 批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런 均衡關係는 維持되면서 一定한 狀態로 부터 다른 狀態로 發展하여 나간다고 보는 動的인 理論도 생기게 되었다.

體制理論이 갖고 있는 가장 큰 長點은 分析을 할려고 하는 모든 對象領域에 關하여 그에 關聯된 考慮要素들을 적어도 重要的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綜合하는 綜合的 考慮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點은 무엇을 投入으로 간주할것이나, 무엇을 產出로 생각할것이나, 무엇을 下位體制로 생각할것이나, 이들 下位體制들이 통하여 어떤 機能을 한다고 볼것인가에 대해서, 社會體制의 경우에는 보는 사람의 見解에 따라서 다 제각기 相異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體制의 境界가 어딘가, 또한 여러 體制間의 關係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대개 主觀的見解에 의하여 定하여지는 傾向이 농후하다.

體制理論의 原始的狀態 또는 巨視的 見地에서는 一定時點의 體制의 狀態를 說明하려는 點이 짝 된다. 이것이 一般적으로 政治學이나 社會學에서 있어왔던 體制理論들의 特徵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體制라는 것이 機能을 갖고 있고, 그機能들은 體制가 움직이는 過程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 이 過程은 投入→變換過程→產出→變換을 말한다. 생각하는 立場이 있을수 있다. 이런 立場에서는 體制變換의 動的過程의 研究의 中心을 갖게 되고 이런 過程의 分析과 設計의 重要하게 된다.

이런 立場에서 對象으로 國家產出을 扶植 爲한 經濟體制(1954-1955)라는 말을 使用하게 된다. 經濟體制의 扶植

내
1
백

出로서 必安한 情報를 拳示하게 된다.

또 產出로서 政策, 企劃, 意思決定等を 생각하고, 이들을 產出하기 위한 合理的인 過程을 分析할 수도 있다.

情報体制와 意思決定体制에 使用되는 理論들을 体制分析技法 (Systems Analysis Technique) 이라고 부른다. 前者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中心으로 하고 이것을 利用하여 情報產出을 하는 技法을 말한다. 後者は OR 費用效果 또는 費用便益分析, PPBS 等を 말한다

後者は 어떤 決定者가 願하는 特定한 意思決定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決定者가 원하는 目標를 내세우고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여러가지 代案들을 내세우고, 決定에 關聯된 狀況을 내세우고, 各狀況下에서의 各代案의 費用과 便益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서로 比較하여 가장 좋은 또는 最適의 代案을 產出로서 建議하게 된다.

体制分析의 技法은 一般的으로 微視的인 問題에 使用하고, 狀況의 不確實性이 적은 狀況에서만 쓰이며, 質的判斷보다 量的인 判斷이 더 重視되는 때에만 그 效果가 크다.

第二節 体制理論의 比較를 構想에의 援用

우리는 第四章까지에서 組織論에서 말하는 效果性의 概念中에서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서 使用할만한 指標를 列挙하였고 꼭 같은 作業을 政治學에서의 業績의 指標에 關해서도 遂行하였다.

그리고 第五章에 와서는 体制의 理論을 概觀하였다. 이제 以上

組織論과 政治學에서 말하는 諸指標들을 다시 再整理 (recast) 하여 體制理論의 立場에 선다면 어떤 考察을 할수 있겠는가를 보기로 하자.

첫째로 產出을 目標構造로 看做할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南北韓이 各各 내세운 目標構造를 列挙하고, 그가운데 不變하는것과 變化하는것, 復雜性和 單純性, 均衡維持와 偏重性等을 보고, 目標의 成就度를 따질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投入으로서는 予算等の 財源 (主로 支出予算의 用途의 變化), 人的資源 (指導者, 一般國民, 士氣, 年令構造等), 情報와 意思傳達, 正統性 等を 따질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融通性, 適應性, 同調性, 緊張, 葛藤, 依賴性, 自律性, 計劃等의 能力은 投入과 產出의 質에 대한 判斷과 轉換過程의 特色에 대한 推理를 위하여 使用할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어떤 型態로던지 政治體制, 外交體制, 軍事體制的 相互關係가 究明되어야 할것이다. 세가지가 相互密接한 關聯이 있다는 것은 明白하지만 過然 具體的으로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規定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以上 세째까지에서 言及한 基本思考體系는 이들 政治, 外交, 軍事의 各體制마다 適用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政治뿐만 아니라 外交, 軍事의 各體系에 대해서 바라는 產出과 必要한 投入에 관해서 그리고 轉換過程에 관해서 構想하여야만 할것이다. 그리하여 위에 紹介하고 評한 組織論의 모형이나 政治學의 理論에서 뽑은 指標들이 반드시 外交 特히 軍事에는 適用되기 困難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別途의 目標과 投入에 관한 言及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產出을 알면 그 体制의 效果性을 알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投入까지 알면 投入과 產出間의 比較를 통하여 能率性도 알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業績을 알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業績을 알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그 体制의 力量을 意味한다고 말할수는 없다. 同一한 投入을 갖고 同一한 業績을 얻었다 하더라도 時間이 얼마나 걸렸는가(時間도 投入으로 보는 見解도 있을수 있다) 하는 問題가 남는다.

또 重要한 것은 어떤 條件下에서 그만큼한 投入을 했고, 그만큼한 產出을했는가의 問題가 남는다. 換言하면 條件이 兩体制間에 共通된다는 경우는 極히 드문것이기 때문에 條件에 대한 充分한 把握이 없이는 어떤 代案이 意思決定을 위하여 必要하고 可能했던 代案인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以下에서 意思決定의 理論을 考察하고자 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才六章 意思決定의 理論과 「게임」의 理論

第一節 理論의 內容

1. 序

第五章까지의 分析의 結果는 體制理論의 基本性質 때문에 靜態的인 것밖에 되지 못한다.

序頭에 서도 말한바와 같이 力量이란 「어떤 일을 알수 있는 힘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의 「어떤 일」은 目標에 의하여 代表된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目標은 다시 過去의 것과 未來의 것으로 兩分할수 있을 것이다. 過去의 目標을 根拠로 한 判斷이 業績이 었다.

그러나 우리가 力量의 比較에 있어서 더 많은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은 未來에 있어서의 目標達成能力이다. 未來의 目標은 未來에 있어서의 意思決定問題로서 내두된다. 더우기 그것도 이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보면 北韓과 南韓의 對決狀況속에서 各體制가 自己目標을 成就하기 위한 意思決定問題를 意味하게 된다.

意思決定의 理論들은 이것을 大分하여 規範的理論과 記述的理論의 兩大系列로 나눈다. 后者는 그 主宗을 이루고 있는 것이 漸增的接近法이며 주로 美國과 같은 政治文化를 是認하고 옹호하는 理論이며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 別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이 系列의 理論中에서 葛藤을 取扱하는 模型에 관한 部分은

南北韓의 對決狀況說明에 若干의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記述的理論보다도 規範的理論이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게임」 (Game)의 理論이 그러하며 이것과 關聯하여 制約條件 (Constrainty)의 理論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2. 葛藤의 模型

「싸이몬」 (H. A. Simon)에 의하면 意思決定에 있어서의 葛藤은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支配할 때에 生진다.

첫째로 目標에 있어서 兩者間에 合意가 없는 때에 發生한다.

둘째로는 目標에 대한 合意는 있으나, 兩者間에 現實認知에 대한 差異가 있기 때문에 發生한다. 이중 어떤 理由때문에 葛藤이 生겼는가에 따라서 葛藤의 樣相이 달라진다.

첫째 問題解決 (Problem - Solving)이 있는데, 이것은 目標의 合意는 있으나, 그 目標達成方法을 둘러싸고, 葛藤이 生긴 경우로서, 新代案의 着想을 위한 探索이 증가 되고, 事實에 관한 情報蒐集에 集中的으로 努力하게 된다.

둘째, 說得 (Persuasion)인데, 이것은 直接的으로 문제가 된 目標間에는 合意가 없지만 上位目標에 대해서는 合意가 默示的으로나마 成立할수 있는 경우이며, 따라서 葛藤의 解消는 直接的 目標 (下位目標)의 上位目標에의 연결, 兩者間의 一貫性등을 따지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되고, 事實의 蒐集은 선자보다 덜 강조되고,

探索은 새로운 直接的目標를 찾는 일에 집중 된다.

세째, 協商 (Bargaining) 인데, 이때에는 目標의 差는 움직일수 없는 것으로 보고, 利害의 相反, 공간, 偽裝 등의 手法이 사용된다. 事實은 別로 중시 되지 않는다.

네째, 政治 (Politics) 라는 해결 方法下에서는 狀況은 基本的으로 協商과 같으나, 다만 主体를 당초의 參與者에 限定시키지 않고, 자기편의 勢力을 증가 하기 위하여 聯合 (Coalition) 의 方法을 動員하는 점에서 다르다.

James Thompson 은 意思決定者가 着想한 各 代案의 結果를 생각하는 側面 (Means) 과 自己가 바라는 目標에 비추어서 評価하는 側面 (ends) 을 중요시 하고, 이兩者를 다시 合意와 不合意에 의하여 類型化한다.

그는 Ends 側面을 「 가능한 結果에 대한 選好 (Preference about lausation) 」라고 부른다.

Means 또는 事實側面을 「 因果關係認知 」 (Beliefs about possible Outumes) 라고 부른다. 이兩側面의 組合에 의하여 葛藤解決行動과 理想構造를 내세우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능한 결과에 대한認知

因果關係認知	合意	計算 (Computation) 官僚構造 (Bureaucratic structure)	妥協 (Compromise) 代議構造 (Representative structure)
	不合意	判斷 (Judgement) 委員會構造 (Collegial structure)	靈感 (Inspiration) 아노미構造 (Anomic structure)

以上과 같은 葛藤理論들은 葛藤当事者が 서로 어떤 意思決定을 要하는 問題에 關하여 共同決定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한다.

따라서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이런 理論들이 適用될려면, 最少限度 兩者가 어떤 問題에 對하여 共同決定의 必要性이 있다는데 合意할 것을 必要로 한다.

이런 일은 平常時에는 別로 想像하기 困難하지만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談 같은 것에 대해서는 適用할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南北韓關係는 Simon의 協商이나 政治의 關係이며, Thompson의 妥協이나 靈感의 關係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即 南北會談에 있어서 「공갈」 「偽裝」 등이 使用되고 國際關係의 要因을 自己편에 有利하게 이끌려고 하는 現狀이 露出되는 理由라고 할 수 있다.

또 南北韓間에는 目標에 대한 選好의 合意도 없고, 事物의 因果關係에 대한 認知方法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南北韓의 會談은 적어도 그 構造가 「아노미」構造를 갖게 되고, 그 結果로 會談의 進展이나 結果에 대한 予測을 할수 없게 되는 것도 이런 理由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葛藤理論이 妥當하는 分野는 外交 乃至 南北關係의 協商分野에 限定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分野에 이를 適用하기 위해서도 이들 理論들이 意思決定者의 當事者의 立場에 서지않고, 오히려 客觀的인 立場에 서서 說明하려고 했기 때문에, 意思決定者로 하여금 이런 種類의 意思決定狀況의 根本性質을 正確하게 把握할수 있게 하는것 以上으로, 直接的으로 當事者에게 対応戰略을 暗示하거나 導出해주는 効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게임」의 理論

「게임」의 理論이 適用되는 対象領域은 意思決定者에게 相對方(敵)이 있고, 이 相對方의 決定에 의하여 意思決定者의 決定이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으며, 또 后者는 前者가 어떤 決定을 알것인지 잘 모르는 不確實한 狀況이다.

그러나 傳統的인 意味의 「게임」理論은 그 適用対象領域을 이것보다는 좀더 嚴格하게 限定시키고 있다.

即 理論展開의 必要上 不確實性(Uncertainty)의 部分을 大幅

減少하지 않을수 없었고, 따라서 各当事者 (Player) 는 他当事者の 目標들을 알고 있고, 모든 当事者는 그의 目標들을 成就하기 위한 如何한 決定이라도 한다고 前提하게 되는 것이다.

좀더 具體적으로 「게임」理論이 前提하는 事項들을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어진 狀況으로 부터 生길수 있는 모든 結果를 詳細히 定義할 수 있다.
- (2) 各当事者는 一貫性있는 選好類型 (Pattern of Preference) 을 갖고 있다.
- (3) 各当事者는 自己가 얻을수 있는 利益 (Utility) 을 極大化 하는 方向으로 決定한다.
- (4) 各当事者는 相對方当事者가 極大化하려고 하는 利益의 數値를 完全히 把握하고 있다.
- (5) 可能的한 結果를 초래하기 까지 關聯되어 双方当事者들이 갖고 있는 價值觀의 全部와 變數의 全部를 詳細히 定義할수 있다.

以上の 다섯가지 基準에 꼭 맞아 떨어지는 경우란 實際에 있어서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게임」의 理論은 大體的으로 이런 條件들이 支配하기만 하면, 他의 方法에 의한 決定보다도 더 낱은 結果를 招來할수 있다. 要는 모든 條件이 嚴格히 適用되는 것을 찾기 보다, 概括적으로 適用될수 있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게임은 이를 關聯된 者의 數에 의하여 첫째로 二人게임 (Two-Person Game), 三人게임 (Three-Person Game) 등으로 나눈다. 여기에 「人」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集團이나 國家에 의하여 代置하여도 그 理論이 그대로 妥當하게 適用될수 있다. 例를 들어 같은 商品을 販賣하는 会社 2個以上이 서로 競争하는 경우라든가, 과점 会社들間의 競争이 여기에 該當된다.

또 國家의 境遇에도 軍事作戰, 外交政策 등의 分野에서 게임理論의 適用이 많이 活用되고 있다.

게임은 또한 「Zero-sum」게임과 「Non-zero-sum」게임의 兩者로 區別한다.

前者는 一方當事者가 得한것은 반드시 他方當事者의 失로 도라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后者에 대해서는 뒤에 言及한다.

戰略 (Strategy) 은 이를 다시 純粹戰略 (Pure Strategy) 과 混合戰略 (Mixed Strategy) 로 나눈다. 前者는 決定의 當事者가 모든 狀況마다 各々 抉하는 決定 (代案) 을 말하고, 后者는 前者의 混合과 各混合의 發生確率을 意味한다.

게임理論은 各種의 相異한 戰略을 發見하는 方法을 提示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代案 (決定) 을 比較하고 그중에서 어떤것이 最適인가를 알아내는데 使用된다.

이 最適戰略을 發見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原則은 Minimax Loss 또는 Maximizingain 의 方法이다.

前者는 여러개의 戰略을 比較할때에 Loss 가 많은 것 끼리 比較하여 그중에서 第一적은 Loss 를 招來하는 것을 抉하는 것을

말한다.

后者는 여러 개의 戰略을 比較할때에 얻는것 (Gain) 이 제일 적은 것들을 比較하여 그중에서 Gain이 제일 큰것을 選擇하는 것을 말한다.

Loss 란 Gain이라는 戰略을 表現할때에 各戰略이 招來하는 Loss 의 立場에 서느냐 또는 Gain에 立場에 서서 比較하는가의 問題이다. 어느 쪽의 立場을 択했든지 一旦 立場이 決定되면 모든 戰略을 다 Loss 또는 Gain 의 어느 한가지로 表現해야 위의 Minimax Loss 나 Maximin Gain의 原則을 適用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兩原則의 어느 것을 択했든간에, 그 結論은 같아진다. 이 原則을 게임의 兩当事者가 適用하여 各者가 얻는 最少, 最高의 得이 꼭 같은 경우를 頂点 (Saddle Point) 이라고 부르고, 이점에 到達한 때에 게임은 解決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게임의 当事者가 3人 또는 2以上으로서 N-Person 게임인 때에는 問題의 解決이 簡單하지 않다.

가장 顯著한 差異는 이때에는 聯合 (Coalition)이 形成되며, 副産物 (Side Payment)이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3人게임의 경우에 2人이 結託하여 第3者에 對抗하고 그 2人間에는 一方은 副産物을 받기로하고 他方에게 得이 되면서 同時에 自己에게도 得이 되는 戰略을 択하는 것이 典型的인 例이다. 이런 때에는 어디에 게임 解決점이 있는가는 매우 答弁하기 困難하다. 게임의 当事者들이 다 이런 聯合關係를 考慮하는 外交關係協商等の 問題에 있어서 試行錯誤나 經驗과 洞察 등이 더 重視되는 것도 이런 理由 때문이다.

(1) 阻止 (deterrence) 와 協商 (Bargaining) 의 理論

Schelling 은 그의 著書 (T.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0) 에서 個人, 集團, 國家들이 相互의 行動을 規制하고자 하거나, 協商을 展開할 때의 概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내 세우고 있다.

그는 주로 Two-Person Game 을 對象으로 하되 Zero-Sum 이 아닌 Non-Zero-sum Game 을 想定하여 다루고 있다.

威脅 (Threat) 이나 協商은 서로 利害가 相反되는 当事者間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의 利益은 完全히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共通의 利益도 갖고 있다.

이것을 南北韓의 協商會談에 適用한다면 兩者는 明白히 利害가 相反된다. 그러나 會談自体를 進行시켜야 하겠다는 點에서는 共通 利益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

美國이 蘇聯에 대하여 阻止라는 政策을 써온것도 明白히 兩者間에 利害가 相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兩國家는 核戰爭의 防止라는 共通利益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Schelling 은 威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使用이 妥當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條件이 必要하다고 한다.

첫째로 相對方이 自己의 決定을 合理的으로 하리라고 期待할수 있어야 한다. 卽 相對方이 그自身이 願하는 價値를 極大化하는 代案을 選擇할수 있어야 한다. 例를 들어 精神病者에게 威脅하여도 아무런 效果를 걸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不合理性은 非一貫的인 價値觀, 計算錯誤, 意思傳達의 未到達 또는 理解 不能등

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한다.

参考로 北韓의 경우에 이를 該 당시켜 보면 저들의 價值觀은 一貫的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意思傳達의 問題에 있어서는 많은 難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相互間의 排他性 때문에 他國家에 대한것 보다 오히려 意思傳達의 通路의 數가 적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같은 事實도 價值觀을 前提하고 解釋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낸 意思를 自己들의 共產主義價值觀에 의하여 解釋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要素를 前提로 하지 않은 意思傳達은 아무런 效果를 갖지 못하거나 逆效果를 招來할 것이다. 남의 아내를 유괴한 사람이 남편에게 돈을 要求한다고 하여도, 그남편이 다른 女子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意思傳達은 所用없는 것이 될것이다.

다음으로 協商이나 阻止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信賴性(Credibility)이다. 다시 말하면 協商의 当事者는 相對方에 대하여 自己의 言行을 믿게 해야 協商이나 阻止가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使用할수 있는 方法들은 法的協定, 儀式, 公開宣言, 最後通牒等이다.

또 威脅을 믿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威脅을 하는 側이 威脅에 隨伴하는 物質的, 非物質的經費를 감당할수 있어야 한다. 이를 全적으로 自担하는 경우 他國家와 分担하는 경우를 생각 할수 있다.

이를 對北韓關係에 適用시켜 보면 南北韓의 力量이라는 것은 終局的으로는 阻止, 協商, 威脅能力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威脅能力이 가장 重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서로 相對方을 威脅할수 있는 能力이 重要한 것이다 그리고 이 威脅能力도 主로 그 費用을 自担할수 있는 能力에 가장 重点이 주어져야 한다.

現時点에서의 南北韓의 基調戰略의 狀況을 보면 北韓은 威脅의 方向을 捫하고 있고, 南韓은 阻止의 方向을 捫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狀況下에서는 北韓은 真正한 意味의 協商을 하지 않는 方向으로 落着될 것은 明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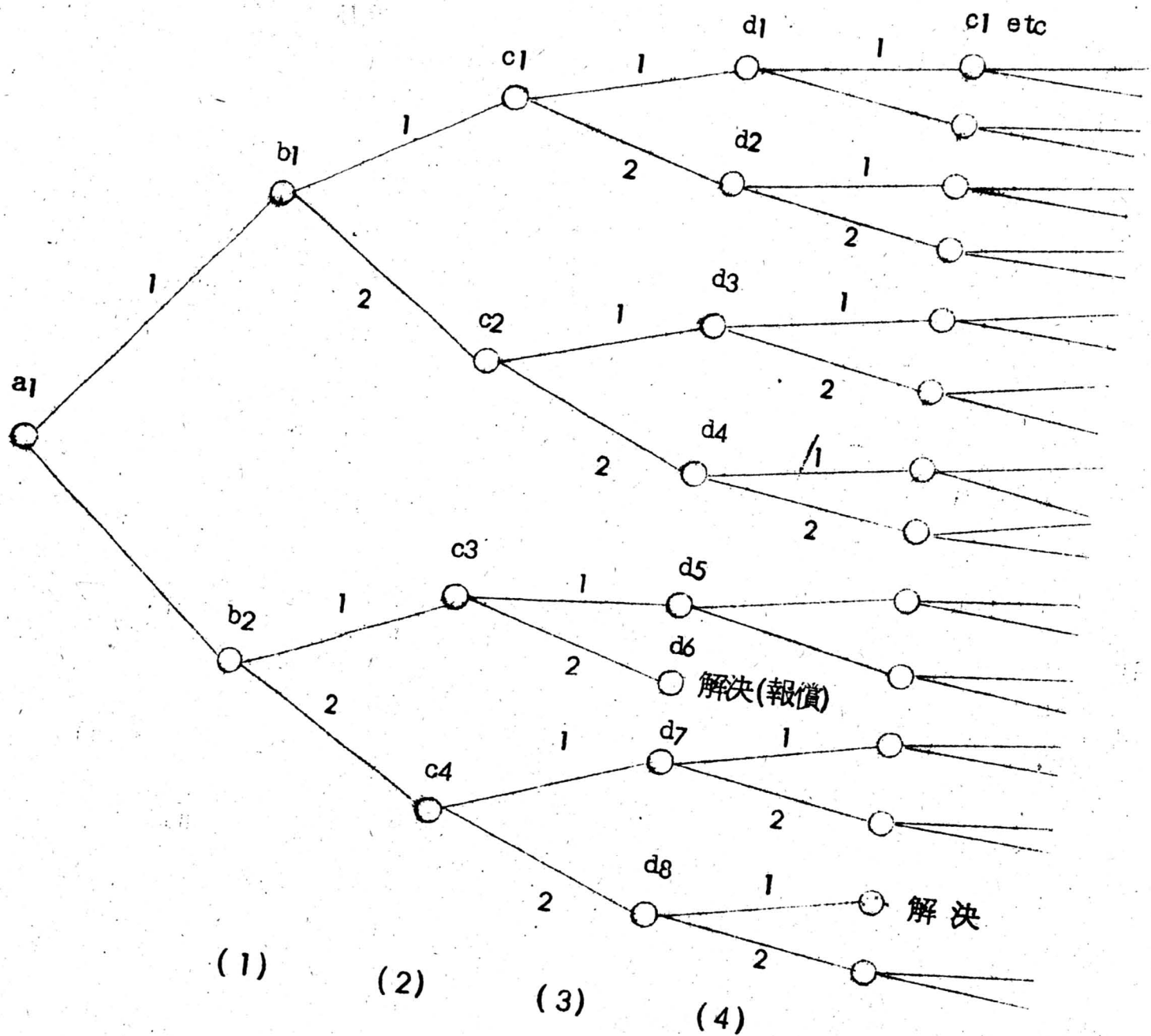
(2) 迷路 (Maze) 의 理論

迷路의 理論은 問題解決 (Problem-solving) 을 위하여 使用되는 模型이다. 迷路라는 것은 通路들의 組 (Set) 를 意味하며, 이 組속에 끝에 가서 어떤 目標物을 求得할수 있는 通路들이 들어 있다. 이 後者의 通路들을 「正確한 通路」 (Correct Paths) 라고 부른다. 따라서 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이 正確한 通路의 어느 하나를 찾아 내는 것이다.

迷路의 例를 들면 다음 圖表와 같다.

이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迷路의 理論은 單語찾기, 金庫열쇠 番号 맞추기, 바둑, 論理나 幾何學, 컴퓨터 프로그래밍, 外國語번역, 機械設計等に 使用될 目的으로 開發된 것이다.

이와 같은 迷路의 理論은 現代 게임의 理論中에서 流行하고 있는 Game Tree 의 모형과 大端히 類似하다고 할수 있다. Game Tree 라는 것은 第1段階 (段階를 나무마디라고 부른다) 에서의 選



折点에서 第2段階를 위한 가지들(事實上 代案들)이 뻗치고 있고,
 다시 그중의 어느 가지를 折했는가에 따라서 第3段階의 가지들이
 뻗치는 것을 繼續하는 것을 말한다. 換言하면 마디마다 다음의
 가지가 달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나무의 그림을 完成하면 게임
 에서 使用될수 있는 完全한 通路의 그림을 把握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첫째마디 또는 段階가 첫째 Player의 choice라고 하면

둘째마디는 둘째 player의 choice이며, 세째 마디는 다시 첫째 player의 choice가 된다. 3人 Game이면 세째마디는 세째 player의 choice를 代表할수 있을 것이다.

迷路와 Game Tree와 相異한 點은 前者는 언제나 player가 혼자서 하는것을 前提하는데 대하여, 後者는 player가 둘 이상 있는 것으로 前提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論들은 段階 또는 마디의 數, 各段階에서의 가지의 數에 의하여 그의 實用性이 制約 받는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通路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段階別 가지의 數가 많으면 全体的인 通路의 數는 相對한 數에 이르게 되고 그 結果로 컴퓨터에 의하여 解決點을 찾지 않을수 없는데 때로는 컴퓨터의 處理能力과 時間에 비추어 그 效用性이 疑心될 程度로 復雜해 진다고 한다.

그러나 Game Tree의 基本概念만은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서 有用하게 活用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앞에서 目標構造에 관한 것을 言及하였었다. 南韓과 北韓의 目標構造를 그려놓고 보면 事實上 上記한 圖表와 類似한 型態의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可能性만 시사하고 좀더 具體적인 것은 뒤에 言及하겠다.

(3) 制約條件 (Constraints)

우리는 앞에서 長期的인 力量에 關心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顯在的인 力量보다도 潛在的인 力量에 더 關心이 있다는

것도 言及하였다.

그리고 微視的인 것보다도 巨視的인 見地에서 보기로 하였다는 것도 벌써 言及하였다.

다음으로 效果성과 業績의 測定을 위한 指標가 무엇이겠는가를 다루었다.

그리고 난 뒤에는 將來에 있을수 있는 目標 또는 對決을 要하는 問題에 必要한 力量의 檢討가 重要하다고 생각하여 主로 게임의 理論을 紹介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게임의 理論部分에서 狀況 (Situation) 이라는 말을 使用하였다. 이 狀況은 意思決定問題가 發生했을 때에 各 当事者가 생각하지 않으면 않될 條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具體的인 意思決定問題와는 關聯시키지 않고, 바꿔 말하면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어떤 決定에나 共通으로 作用하는 要因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 要因中에서 特히 意思決定者의 立場에서 自己行動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을 制約條件 (constraints) 이라고 부른다. 勿論 모든 制約條件이 變化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相當한 部分은 各樣의 速度로 變化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制約要因들은 여러개의 意思決定을 制約한다는 點에서는 共通하다고 할수 있다.

이런 制約要因들을 알면 相對方의 行動半徑 또는 代案의 幅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力量의 推測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制約條件의 種類는 여러가지가 있다.

物理的制約要因의 例로서 裝備 (産業과 軍事) 物理的環境制約要因의 例

로서 地形, 地域의 크기, 氣候, 原料, 鐵道, 道路等을 생각 할수 있다.

國際的環境으로서 軍事, 政治, 經濟協定, 貿易, 技術의 流入等을 생각할수 있다.

情報制約要因으로서 技術者와 水準, 教育程度, 通信網을 들수 있다. 또 地域配置制約要因으로서 人口의 地域的 分布, 都市分布, 工場分布, 軍事基地分布等을 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目標와 價値의 制約條件을 생각할수 있다. 이것은 目標나 價値觀의 硬直性 때문에 目標選定, 優先順位選定, 手段選定等에 制限을 받는 것을 意味한다.

以上과 같은 制約條件들을 研究하는 理由는 相對方의 弱點을 알려고 하는데 있다.

우리가 이 研究에서 關心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力量의 問題도 바로 이런 強點과 弱點을 알아 내는 問題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制約條件의 研究는 매우 意義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制約條件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相當한 時間에 걸쳐서 安定的인 것이 있는 反面에 比較的 可變性이 높은 것이 있다.

前者는 地形, 道路, 鐵道, 意思傳達網, 原料, 國民性, 人口集中型態, 教育程度, 人口特性(demographic Characteristics), 工場立地等이고 後者는 指導者, 技術, 外來裝備 等이다.

第 二 節 評

以上 意思決定 乃至 게임의 理論의 大綱을 훑어 보았다. 이제 그 結果는 우리의 研究目的達成에 도움이 될만한 概念들을 묶아 보기로 한다.

첫째, 葛藤理論에서는 다음과 같은 觀察을 할수 있다. 南北韓이 共同決定을 하기 위하여 所謂 接觸, 協商, 妥協 등의 形式을 取하려고 할때에는, 그 基本關係의 性質이 上位目標에 대한 合意는 없이 對面하는 關係일 것이다. 設或 手段 또는 下位目標에의 合意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合意를 통하여 얻을려고 하는 結果(上位目標)는 各各 전혀 다른 內容의 것이 될것이다. Anomie 構造 때 문에 合議의 將來를 予測하기 困難하고, 極에서 極으로 變化할 可能性이 많고, 「공갈」「偽裝」「脅迫」「國際的 壓力의 動員」 등의 方法을 使用하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게임 理論의 分野에서는 다음과 같은 觀察을 할수 있다.

첫째로 北韓의 基本戰略은 一連의 教科書(박스, 레-닌, 스타-린, 毛沢東 등의 教理)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南韓側의 立場에서 볼때에는 相對方의 上位目標들을 알수 있고, 따라서 「게임」理論의 領域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南北韓의 基本關係는 Two-Person Zero-sum Game의 경우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北韓도 一部 얻고, 南韓도 一部 얻는다는 경우는 稀少할 것이며, 또 北韓이 점차적으로 蘇聯,

中共과의 等距離外交 또는 主体性, 中立등을 표하는 点으로 보아, 또 美国이나 日本이 점차적으로 이 地域에서의 involvemant 를 줄일려고 하는 傾向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Two-Person Zero-Sum Game 의 型態로 變化해 가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勿論 南北韓의 關係가 完全히 Two-Person Zero-Sum Game 에 꼭 들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南北間의 対決은 언제나 美, 日, 蘇, 中共等과의 關係를 考慮하면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 事變이나 冷戰時代와 다른 것은 이들 南 또는 北과의 聯合勢力은 韓半島에서 直接的인 対決을 避할려고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大韓民國+美国+日本の 北韓+蘇聯+中共과의 対決이 아니라 南韓과 北韓의 対決이며, 美国, 日本, 蘇聯, 中共等은 後見的 立場에 선다는 公式으로 變化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判断한다. 이런 角度에서 볼때에는 이들 四国은 南北韓이 対決함에 있어서 서로 動員할수 있는 外交, 軍事, 經濟面의 資源(resources)으로 看做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南北關係가 Two-Person Game이라는 見地에 서면 Schelling 의 阻止와. 協商의 理論은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대로 協商會談에 마주 앉는 것도 그것自体를 共通利益이라고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Schelling의 理論과 關聯하여 南北韓의 力量이라는 것은 終局的으로는 阻止, 協商, 威脅能力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特히 重要な 것은 北韓의 威脅能力, 南韓의

阻止能力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威脅과 阻止의 能力은 그 費用 또는 資源(resource)을 自担할수 있는 能力을 意味한다고 指摘하였다.

制約條件의 理論이 大端이 많은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벌써 言及하였다. 그런데 制約條件中の 많은 것은 威脅이나 阻止를 위한 資源으로 간주할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裝備, 原料, 外國으로 부터의 流入分, 技術等은 資源에 속하고 이들은 威脅 또는 阻止를 위하여 動員할수 있는 資源이다.

反面에 制約條件속에 是 資源 또는 投入으로 간주 할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地形, 選路, 鐵道, 目標나 價值, 氣候等은 여기에 屬한다.

아무튼 南北韓의 處하고 있는 制約條件의 分析은 力量의 把握을 위해서 絶對적으로 必要하다.

Game Tree의 理論도 北韓이 過去에 行한 意思決定의 実績을 通해서 그들이 取하는 代案의 inventory를 作成하고, 이를 狀況別로 整理하면 將來에 대한 予測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目標構造도 이런 方法에 의하여 導出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第七章 力量의 總體的 틀(Over All Framework)

一 試 案

第一節 一般模型의 作成

以上 第六章까지에서의 關聯된 理論들을 全部 檢討하여 보았다. 이제 이들을 活用하여서 南北韓의 力量比較에 必要한 Model 또는 Framework를 作成하여 볼려고 한다.

이 Model의 作成을 위해서는 첫째로 Model 속에 들어갈 各種의 Category 또는 要素들이 무엇인가를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一要素는 目標構造라고 할수 있다. 이것을 따지는 理由는 体制의 産出을 알고 推定하기 위한 것과, 体制의 能率性を 알기 위한 것이다. 政治, 外交, 軍事의 各体制別로 目標構造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目標構造分析은 매우 어려운 分野에 屬한다. 왜냐하면 資料의 求得難 以外에 資料를 어떤 角度에 의하여 分析整理하는가에 따라서 目標를 記述하는 方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目標構造는 最上位 目標로 부터 始作하여 어느程度까지 具體的이며 可視的인데 까지 끌고 내려가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것은 實務的으로 보면 너무 여러 段階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勿論 政治는 外交, 軍事, 經濟等の 上位体制이고 後者들은 政治의 下位体制이기 때문에 政治의 경우에는 目標의 抽象化度가 높고, 外交, 軍事等の 경우에는 좀더 具體的인 目標를 내세울수 있을 것이다.

第二要素는 制約條件이다. 이를 制約條件分析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制約條件은 이를 不變條件과 可變條件으로 나누고 前者에 대해서는 一名 基本背景 (Basic Backgrounds) 情報라고 부를수 있다. 그리고 數년에 一圖式 이를 分析하여도 그 目的을 達成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後者 即 可變條件에 대해서는 每年 또는 그 以上の 頻度를 갖고 分析하여야 하며 前者는 Descriptive Element 라고 하면 後者는 Reporting Element라고 할수 있다. 制約條件分析이 必要한 理由는 相對方이 投入할수 있는 資源(物質的, 非物質的인 것을 包括)을 알고저 하는데 있다. 即 投入能力의 強弱點을 알고저 하는 것이다.

制約條件의 記述에 있어서 問題되는 것은 政治, 外交, 軍事別로 어떤 種類의 投入이 概念上 拳示될수 있는가를 決定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政治, 外交, 軍事를 各各 어떠케 定義하는가에 따라서 決定될 傾向이 많다.

그리고 制約條件分析에 있어서 반드시 考慮하여야 하는 것은 資源을 自己統制下에 있는 것과 自己統制밖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國內에서 完全히 動員可能한것과 外國에 依存하고 있는 資源을 区分하여야 한다.

第三要素는 戰略, 戰術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주어진 制約條件下에서 어떤 戰略, 戰術을 揶했는가의 問題이다. 換言하면 目標達成을 위하여 使用한 行動代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概念的으로나 實務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戰略, 戰術과

目標構造가 혼同될 念慮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戰略의 경우에 그러 할 것이다.

概念的으로는 目標은 여러개의 戰略을 꿰는 共通的인 것이며, 同時에 戰略이나 戰術을 着想하기 전부터 있었던 大前提가 되는 指針이라고 할수 있다.

第四要素는 過程이다. 過程分析은 무엇에 해당 되는가 하면 주어진 目標와 주어진 制約条件下에서 發想된 戰略, 또는 戰術을 實踐하는 過程을 意味한다.

이過程은 體制理論에서의 轉換過程(Conversion Process)에 該當하는 것인데 이때에도 어떤 側面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過程을 概念化하는 方法에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本研究에서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效果性的의 諸概念을 여기에 適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迅速性, 融通性, 適應性, 同調性, 緊張, 葛藤, 信賴性, 自律性, 計劃等이다. 그리하여 過程을 分析할 때에 절러드는 事件 하나 하나를 直接 記述하는 것보다는, 그런 事件들을 위의 諸基準을 위한 判斷資料로서만 使用할것을 勸告한다.

第五要素는 狀況이다. 이것은 概念上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目標, 戰略, 戰術過程等은 다 그 當時의 狀況要因의 支配를 받으면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後述하는 業績이라는 것도 狀況의 如何에 의하여 支配된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狀況(Situation)의 概念속에는 편의상 制約條件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南北韓의 關係에 있어서 서로 相對方이 그當時에 어떤 戰略과

戰術을 使用하였는가를 考慮에 넣자는 것을 意味하며, 이것을 制約條件의 概念과 分離하자는 뜻이다. 制約條件은 大部分 投入으로 간주될수 있는 資源이나 또는 中立的인 條件들을 意味하기로 하면 北韓側의 立場에서 南韓의 戰略을 考慮에 넣고 自己의 戰略을 짚 때의 南韓의 戰略은 明白히 制約條件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第六要素는 業績이다. 業績分析은 앞에서 提示한 目標構造分析이 잘되면 거이 自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政治의 目標는 매우 抽象化될수 밖에 없다는 點에서 보면. 外交나 軍事에 比하여 業績을 量的으로 나타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目標와 業績間에는 반드시 時差가 있어야 한다는 點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時差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는 大體的으로 政策 또는 便宜에 의하여 定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많은 無理가 없는 限 大體的으로 5年内外를한 區間으로 잡아서 分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5年의 初년에 目標가 設定된 것으로 보아도 業績의 達成은 5年의 末年까지의 사이에 언제라도 이루어지며, 6年째에 가서 急速히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5年5年式 連結하여 分析함으로써 總體的意味의 把握에 努力하여야 하는 部分이 많을 것이다.

第七要素는 能率性이다. 能率性分析은 投入에 比한 產出을 意味한다. 따라서 적어도 概念上으로는 制約條件中에서 實際로 投入된 資源을 알고, 業績(產出)을 알면 自動적으로 判斷이 可能한 部分

이다. 能率性分析도 最終判断은 狀況과의 關聯下에서 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第八要素는 将来에 대한 推定問題이다. 이것을 予測分析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第七要素까지는 全部 過去에 關한 것이다. 그의 基礎가 된 資料들이 全部 過去에 關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過去の 資料에 立脚하여 将来에 關한 것을 予測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未來에 대한 予測은 첫째로 第一에서 第七要素까지의 各各에 대해서 할수 있을 것이다. 即 目標構造分析, 制約條件分析, 戰略, 戰術分析, 過程分析, 狀況分析, 業績分析, 能率性分析等を 할때에, 그것을 하는 者가 便宜上 同時에 未來予測까지 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未來 5年間に 이들 各事項이 어떻게 變化하리라는 予測을 할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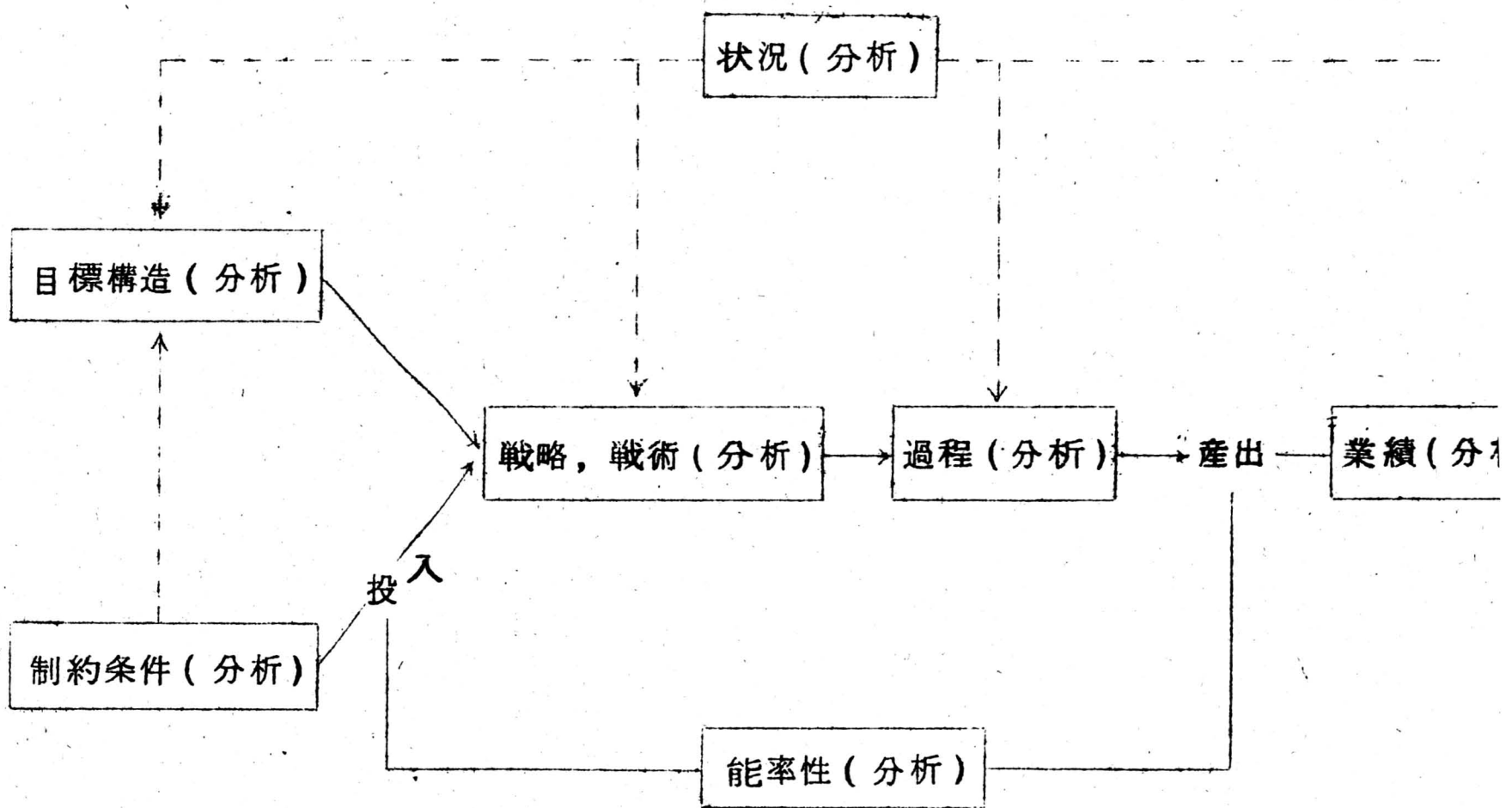
이러한 予測이 끝나면 이어서 같은 期間(未來)동안에 일어 날수 있는 南北間의 對決問題의 Issue (軍事戰爭을 包含)들을 導出해야 한다. 이런 Issue 들의 型態은 戰爭, 協商, 外交競爭, 經濟競爭等の 어느 型態를 扨하게 될것이다. 이것들을 다시 威脅能力, 阻止能力等の 量에 의하여 南韓과 北韓을 比較하는 作業을 해야 할것이다.

이때의 威脅能力, 阻止能力等の 量은 이것을 數値로 表現할수 있는 部分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即 大部分의 경우에 量에 關한 質的判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質的判断은 極히 어렵고, 獨斷에 빠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專門化해야 하고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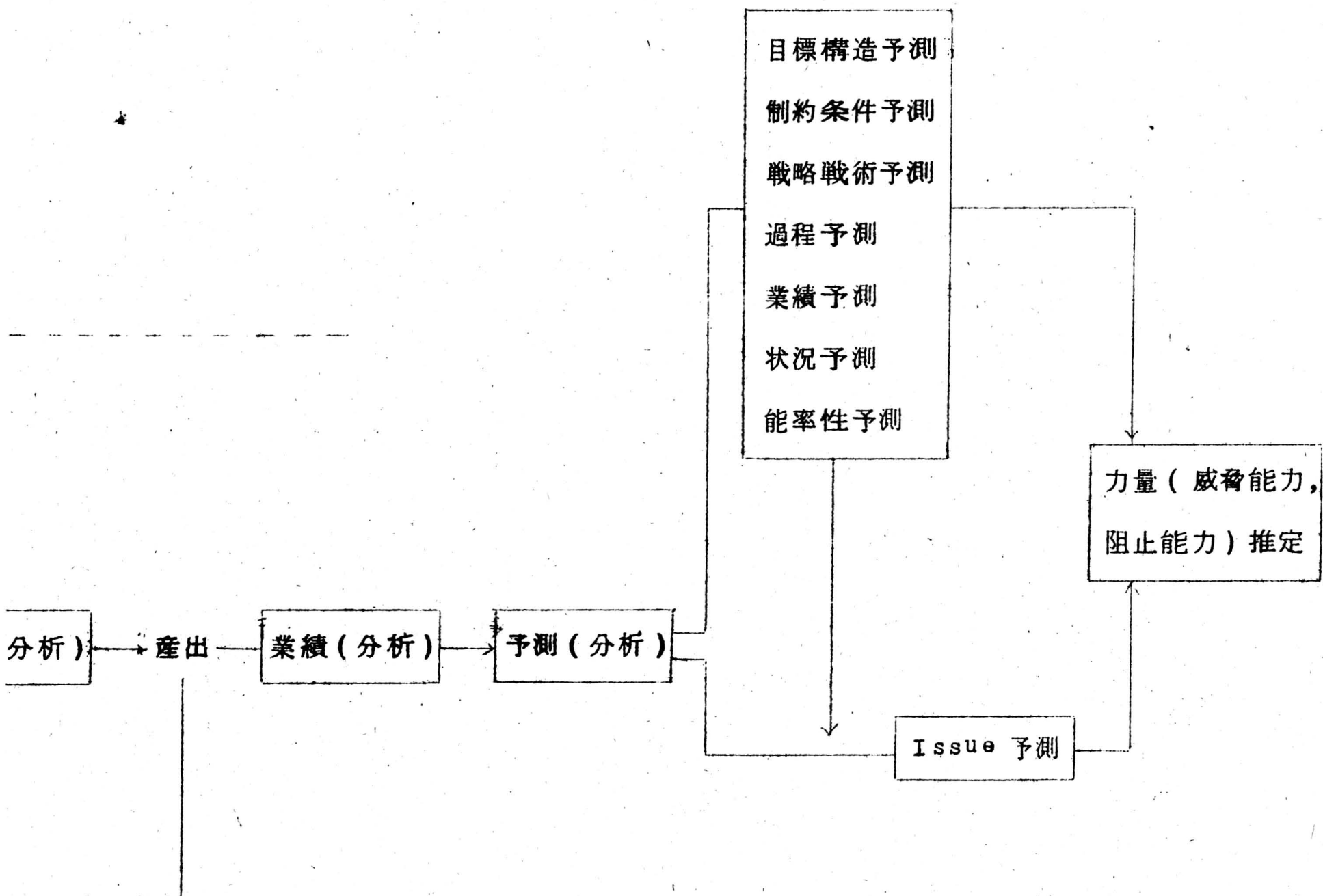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質的判斷이 不可能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過去에 관하여 各当事國의 目標, 制約條件, 戰略戰術, 過程, 狀況, 業績, 能率 등을 알고 있고, 또 아주 正確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에 관한 將來 5年의 變化傾向의 予測資料가 있음으로, 어떤 Issue가 提起될 때에 相對方이 주어진 制約條件과 狀況下에서 어느 程度까지 어떤 戰略이나 戰術을 構想할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潛在力의 推定이 可能한 것이다.

以上에서 提示한 八種의 要素들은 相互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圖表에 의하여 다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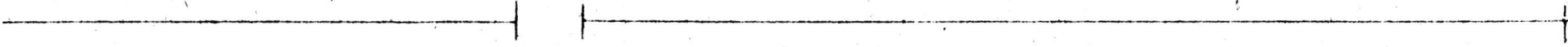


過去 5 年 对 象

凡例 \longrightarrow 順序 $- - - \rightarrow$ 作用方向 ——— 關係



未来 5 年 对 象



第二節 一般模型의 具体化

以上과 같은 模型은 이미 明白히 한바와 같이 要素 또는 Category를 中心으로 各 Category의 關係를 規明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Category들은 우리가 定義한 力量의 概念과의 relevancy가 있다고 생각되는 概念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어떤 Theory Building 作業에 있어서나 Model의 Category만 갖고는 經驗的, 實証的인 作業을 하기가 困難하다. 다시 말하면 實証的인 資料들에 連結될수 있는 概念의 具體的, Operaticnality가 없으면 Model의 妥当性이나 予測力 (Predictive Power)을 알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Theory Building에 있어서 Category는 指標 (indicator)로 分類되고 다시 各指標를 分類하여 變數 (Variables)화하는 作業을 하게 된다. 이렇게 導出된 變數들이야말로 實際로 經驗 또는 現實의 世界에 適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變數 二個以上の 關係를 說明하기 위한 것을 假說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오늘날의 科學哲學의 一般的인 主張은 變數의 段階까지 具体化됐을 때에 비로서 量化가 된다고 한다.

以上과 같은 一般理論에서 우리의 研究目的에 비추어 取舍選擇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研究는 Theory Building 自体에는 關心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嚴格한 學問的要求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變數의 相關關係나 相互作用 乃至 假說의 導

出이나 檢証까지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分析, 判斷하는 자는 本質적으로 이런 作業을 廻避할 수는 없을것이다. 다만 그 方法에 있어서 基礎가 되는 資料에 의하여 직 觀(intuition)이나 洞察(insight)力, 또는 經驗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이 作業을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무리 Theory Building에 關心이 없다고 하더라도 category를 indicator化하고 이를 다시 變數化하는 作業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現象의 世界와 連結이 이루어 질수 없고 따라서 實務적인 作業이 進行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第六章까지에서 各要素를 取扱할 때에 그것들의 指標를 可能한 限 言及하였었다. 이제 그것들을 要素別로 以下에 列挙하면서 同時に 새로운 指標들을 만드는 作業을 試圖해 볼려고 한다. 다만 相當한 경우에 이 作業이 애매하거나 獨斷에 흐르거나 不可能한것이 있고, 앞으로의 研究結果들에 期待하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이와같은 指標들은 政治, 外交, 軍事別로 이를 發展시키는 作業을 해야할것이다.

또한 指標相互間의 關係(같은 要素內에서의 關係와 他要素內의 指標와의 關係)는 전혀 알수 없거나 또는 完全히 推理의 領域에 머무르고 말것이다. 이런 關係의 把握이 매우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거기에 關한 아무런 妥當한 理論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指標를 變數化하는 作業은 實務作業過程에서 合意에 依하여 導出될수 있을 것이다.

才八章 部門別力량의 比較와 「틀」의 具體化

第一節 政治 力량의 比較

1. 政治와 他下位體制와의 關係

政治體制는 一國家內에서의 價値의 權威에 의한 配分을 하는 體制라고 할수 있다. 이때의 價値는 그社會속에서 높이 評價되는 價値를 말한다.

外交, 軍事, 經濟, 社會 등의 體制는 政治의 下位體制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國家內에서 높이 評價되는 價値를 追求하고 配分하기 위한 手段的인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外交와 軍事가 政治의 下位體制로서 政府의 機能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共產國家나 民主國家나 共通된 點이다.

그러나 經濟와 社會의 경우에는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는 比較的 loose한 構造와 民間部門의 主導에 委任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대하여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이들도 政府의 機能과 統合組織되어 있고, 公共部門의 一部로서 取扱된다.

어떤 경우에나 한나라의 政治의 內容을 알려면 歸納的으로 外交, 軍事, 社會, 經濟의 構造와 機能을 알므로서 導出될수 있다. 反面에 演繹적으로 政治가 追求하는 價値의 內容으로 부터 外交, 軍事, 社會, 經濟 등의 構造와 機能을 導出할수 있다.

外交, 軍事, 經濟, 社會 등은 一面 政治의 手段이면서, 他面 政治의 內容을 支配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政治에서 追求하는 價値는 그

나라의 經濟, 社會, 外交, 軍事 등의 動態의 속에서 發見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國民들이 어떤 社會問題에 關心을 갖고 있고, 어떤 經濟價値를 追求하고 있고, 國土防衛나 對外關係에 관하여 무엇을 높이 評價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政治가 追求할 價値가 決定된다고 할수 있다.

以上과 같은 密接한 相互關係는 우리의 研究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수 있다. 即 政治와 外交 및 軍事間的 指標의 變數에 있어서 서로 重復되는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確實하나 무엇이 어느程度까지 重復되어야 하는가는 主觀的判斷에 依存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政治力量의 比較

共產國家의 경우에는 政治의 概念이 매우 넓다고 할수 있다. 저들의 경우에는 經濟도 政治이고, 外交도 政治이고 軍事도 政治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政治를 担当하는 者들(共產黨員이 主軸)이 關与하는 範圍가 自由民主主義國家의 경우보다 넓다는 것을 意味한다.

共產主義者들도 選舉, 信仰自由, 民主主義 등의 用語를 표방하나 이것은 어디 까지나 勞働者, 農民階級에 一次的으로 限定시키고 窮極的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를 代行하는 共產黨에 의한 支配를 위한 手段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最終目標는 共產革命 또는 共產主義의 實現이고, 이들 全世界的으로 擴散시키고 저 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共產國家의 目標는 大部

分の 경우에 攻撃的, 進取的인 型態를 띄게 된다.

이에 대하여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國民一般의 權益의 유지와 增進, 保護等을 強調하게 되고 따라서 目標가 現狀維持的, 온건적인 型態로 表現되게 된다.

以上을 다른 角度에서 보면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上位目標가 單調롭고,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는 復雜하고 多數에 이룬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前者의 경우에는 政治의 使用빈도가 높고, 後者의 경우에는 낮다고 할수 있다.

(1) 目標 構造

最高位 (第一段階) 目標

- (가) 人權의 伸張
- (나) 經濟生活의 運轉
- (다) 삶의 質 (意味있는 人生의 영위) 向上
- (라) 社會安定
- (마) 國土統一
- (바) 國際交流 및 主權의 保障
- (사) 共產主義革命

次下位 (第 2 段階)

目標

社會部門目標

外交目標 (第二節參

照)

軍事目標 (第三節參調)

以上과 같은 目標構造를 南韓과 北韓의 경우에 對比하면 南韓은 (사)를 除外한 全部에 比較的 均等히 強調點이 주어지는데 대하여 北韓의 경우에는 (사)에 置重되고 他는 이를 犧牲시키고저 하는 경향이 많고, 또 共產主義라는 理念에 의해서 解釋한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數值化가 可能한것은 第二段 目標가 더 많으며, 이 連續

線을 더 繼續하면 그만큼 量化項目이 많아질 것이다.

(2) 制約條件

(가) 全体予算의 內容과 變動幅

(나) 指導者들(最高管理, 中級管理, 下級管理層 包含)의 質

例: 社會化過程, 教育內容, 教育程度, 補職의 순환, 背景, 海外
旅行等を 통해 본 指導者들의 性格

(다) 一般國民의 質(國民性)

(라) 國民의 人口的 特性(量, 年令分布), 地域分布, 教育程度,
性)

(마) 正統性: 國民들의 自發的 支持度

(바) GNP와 Per Capita Income

(사) 富의 配分과 均衡

(아) 其他 經濟面의 制約條件

(자) 外交面의 制約條件(第二節參照)

(차) 軍事面의 制約條件(第三節參照)

(카) 國民의 組織化度

(3) 戰略, 戰術

戰 略

(가) 戰爭 對 平和

(나) 閉鎖 對 開放

(다) 國際協力 對 孤立

(라) 政治權力의 견제와 균형

(마) 輿論政策

- (바) 指導者 供給類型
- (사) 國民에 대한 制裁方法
- (아) 危機政治의 方法, 頻度
- (자) 國土統一 基本路線
- (차) 時間觀念 (時機選定原則)

(4) 過程

- (가) 融通性
- (나) 適應性
- (다) 同調性 (國民의 規律을 意味함)
- (라) 緊張 (政治분위기의 緊張感)
- (마) 葛藤 (國民속에서 異見表示의 程度)
- (바) 士氣 (國民의 士氣)
- (사) 信賴性 (國民과 中堅指導層以下에 대한 行動의 信賴度)
- (아) 創意 (教科書的인 戰略, 戰術로 부터 脫皮하여 建設的인 案이 發生하는 程度)
- (자) 自律性 (各級 指導者들이 自己의 所信에 따라서 行動할 수 있는 程度)
- (차) 意思傳達 (國民一般속에서 그리고 各級, 各種組織의 階序속에서의 各方向의 意思傳達의 旺盛과 效率性)

(5) 業績

業績의 指標는 主로 目標構造와 戰略中에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業績은 目標의 達成度를 意味함으로 目標構造와 指標가 同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對象期間의 初期의 것

이 目標構造라고 하면 같은 期間의 終了点에서의 것이 業績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業績은 具體的으로는 目標의 内容이나 量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가능한 限 量化하기 위해서 第二段階以下の 目標를 根拠로 作業 하여야 하며, 量化가 不可能한 것은 質的 判斷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制約條件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그것들이 対象期間의 滿了点 에 가서 많이 바뀌어 질것임으로, 그리고 그렇게 바뀌진것도 政治 의 業績이라고 볼수 있음으로 亦是 業績指標化하여 取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國民의 自發的支持度가 더 增加되었다든가 GNP가 增加된것 같은 것은 이런것들이라고 할수 있다.

(6) 狀 況

政治体制의 狀況으로서 外交, 軍事, 經濟, 社会等の 制約條件 속에 들지 않는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研究目的이 南北間의 對決을 意識하고 있고, 그런 意味에서 南과 北의 政治体制는 各己 相對方에 대한 意識을 하면서 政治를 한다고 생각됨으로, 対象期間동안의 相對側의 政治狀況을 여기에 代入해서 考察하기를 勸告한다.

(7) 能 率 性

制約條件가운데 投入으로 간주할수 있는 것은 ①預算 ②正統性 ③組織力 ④國民 指導者等の 人力 ⑤外交面의 投入 ⑥軍事面의 投入等이다.

이런 投入을 갖고 위의 業績을 얻었다는 前提下에서 兩者를 比較하여 結論을 내려야 할것이다.

(8) 予 測

予測中에서 Issue 予測은 앞에서 우리가 전제하기를 南北間에 對決을 要하는 Issue 를 假想하는 問題라고 하였었다. 그런데 外交, 軍事, 經濟, 社會 등의 分野에서 南北間이 協商하거나 對決하는 問題는 想像이 可能하나, 政治 그 自體의 分野에서 相對方의 國內 政治를 갖고 協商하는 것은 統一의 節次와 方法에 關해서만 있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가까운 긴박한 問題는 北韓이 南韓內에 混亂을 造成하고 利用하고자 하고 南韓이 이를 阻止하고자 하는 型態의 對決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分析의 焦點은 北韓과 南韓이 各各 이런 對決을 위한 力量이 얼마나 있는가의 問題에 주어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各種要素들에 대한 予測에 立脚하여 이런 意味의 對決力量을 推理하는 作業을 하여야 한다.

第二節 外交力量의 比較

北韓의 外交力量을 檢證하기 위하여 一般模型을 外交分野에 適用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目標構造

- (1) 共產陣營國家들과의 紐帶強化
- (2) 共產, 中立陣營, 其他自由陣營國家들을 통한 反美紐帶의 強化
- (3) 中立, 自由陣營 國家들 內部的 社會主義, 共產主義革命 支持勢

力의 擴張

(4) 經濟利益의 追求

(5) (1)~(4)를 통한 大韓民國의 國際的 孤立促進

2. 制約條件

(1) 既存國交關係

(2) 各種協定과 合意

(3) 通商의 範圍와 量

(4) 公館, 準公館의 數

(5) 外交人力의 質과 數

(6) 外交活動에 所要되는 財政規模

(7) 國際機關加入 또는 參席範圍

(8) 中立 및 資本主義國家內的 共產主義同調勢力의 狀況

3. 戰略, 戰術

戰 略

(1) 資本主義國家間的 分裂助成과 分裂의 利用

(2) 中, 蘇關係의 調和

(3) 國際輿論의 有利한 條件造成

(4) 大韓民國에의 第三國 우회 侵透

(5) 文化交流

(6) 訪問外交의 活用

(7) 資本主義國家內的 分裂助成과 利用

(8) 軍事, 經濟, 技術援助의 獲得

戰術

위의 各項目마다 事件別로 構想할것

4. 過程

- (1) 一貫性이 있는가?
- (2) 融通性이 있는가?
- (3) 迅速性
- (4) 信賴性이 있다고 看做되는가?
- (5) 外交活動 從事者들에게 自律性이 있는가
- (6) 外交活動 從事者들에게 創意性이 있는가
- (7) 國民의 支持를 받고 있는가?

5. 業績

- (1) 外交成長率

公館數等の 公式的인것 뿐만 아니라, 偽裝社會團體도 포함

- (2) 國民의 支持

(質的判斷을 要함)

- (3) 其他는 制約條件의 改善과 戰略 level에서 指標를 求할것

例 : 國際機關加入 增加率

非共產國內의 同調勢力의 增減

國際輿論의 變化

訪問外交의 成果

各種援助의 變化

6. 状 況

外交關係에 있어서의 狀況을 自國內의 狀況과 相對國(例 北韓의 경우에 南韓)의 狀況으로 解釋할것

- (1) 國民輿論
- (2) 國內의 政治情勢
- (3) 國內의 經濟力
- (4) 國內의 軍事力
- (5) 相對國의 國際的 位置
- (6) 相對國의 國內狀況

7. 能率性

制約條件中 對前期間內에 投入된 것의 種類에 對한 質과 量의 判斷, 이에 對한 業績의 比較

8. 予 測

Issue의 予測은 南北間에 對決을 要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할 것

例 示

- (1) 全面戰爭에 對한 外交支援
- (2) 部分戰爭에 對한 外交支援
- (3) 케리라戰爭과 混亂造成에 對한 外交支援
- (4) 統一問題政治會談
- (5) 文化交流
- (6) 經濟交流

- (7) 人道問題解決
- (8) 書信往來
- (9) UN에서의 對決
- (10) 他國際機構에서의 對決
- (11) 海外僑胞中心 宣傳對決
- (12) 特定國家外交關係樹立對決
- (13) 海外間諜活動을 통한 對決

마지막으로 앞에서 분석한 制約條件分析, 目標構造分析, 戰略戰術分析, 過程分析, 業績分析, 能率性分析의 資料와 將次 5年間に 관한 變化予測을 根拠로 하고 이들을 連關적으로 생각하면서 各Issue마다 南北韓의 對決力量을 推定할수 있을 것이다.

第三節 軍事力量의 比較

南韓과北韓의 軍事力量을 比較하는데 있어서의 問題點은 戰爭의 概念의 差異라고 할수 있다. 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共產主義革命을 위한 모든 活動은 戰爭이라고 이름지어진다. 그리하여 南韓과 같은 곳에서는 平和 또는 平和的이라고 사용되는 用語가北韓의 경우에는 戰爭 또는 戰鬪的이라고 表現되는 것이다.

다만北韓의 경우에도 軍隊가 介入하는 戰爭은 武裝 또는 武器에 의한 戰鬪를 意味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比較하는 軍事力이란 그主된 對象을 이런 意味의 軍隊가 主軸이 되는 戰爭 또는 戰鬪의 遂行能力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現代戰이 總力戰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否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軍事力の 比較에 있어서 外交의 경우와 다른 問題點이 提起되는 것은 軍隊의 力量이란 戰爭을 통해서 Test되는 것인데, 戰爭이 없는限 그의 業績도 實証하기 매우 困難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比較를 使用하는데 있어서 業績部分은 間接指標에 의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1. 目標構造

- (1) 武力에 의한 自國安全保障
- (2) 武力에 의한 自國利益의 爭取
- (3) 國土統一에의 貢獻

2. 制約條件

- (1) 軍事予算의 量과 用途
- (2) 軍事人力의 質과 量 (正規兵力, 予備兵力 및 訓練內容과 量 包含)
- (3) 武器體制 (種類, 年式, 量, 種類別火力, 種類의 組合方法)
- (4) 補給體制 (種類, 量, 備蓄)
- (5) 武器, 補給品의 對外依存度
- (6) 配置 (基地配置, 兵力配置의 地域, 地上, 地下)
- (7) 維持, 管理費 (費用, 戰鬥兵力과 支援兵力의 比)
- (8) 軍事外交活動 (網, 人力, 活動內容)
- (9) 國際協定의 內容
- (10) 通信施設의 網과 效率性

- (11) 陸海空軍의 構成比, 各軍內의 兵科構成比
- (12) 指揮體制와 組織
- (13) 士 氣

3. 戰略戰術

戰 略

- (1) 全面戰 对 局地戰能力
- (2) 先制攻擊 对 防禦, 後退能力
- (3) 单独戰 对 聯合戰
- (4) 總力戰의 概念 (例, 全人民武装, 全地域 要求化)
- (5) 速攻 对 持久戰
- (6) 正規戰 对 非正規戰, 遊擊戰
- (7) 前方戰, 後方교란의 組合
- (8) 精神武装의 強調度

戰 術

- (1) 山岳戰 对 平地戰
- (2) 夜間戰 对 昼間戰
- (3) 其 他

4. 過 程

- (1) 迅速性
- (2) 持久能力
- (3) 融通性
- (4) 与件에의 適應性
- (5) 同調性 (軍隊의 경우에는 規律과 같음)
- (6) 軍隊內의 緊張度 (Alert 狀態를 의미함)
- (7) 軍隊內의 葛藤

(8) 軍隊行動의 信賴性

(9) 下級部隊들의 自律性

(10) 各軍, 各級部隊, 各種部隊間의 調整力(行動統一力)…(새로
追加된 것임)

5. 狀 況

軍事의 경우에 狀況이라고 하는 것은 国内他部門, 例를 들면
經濟, 社会, 政治等의 与件 및 國際情勢等を 意味함

(但 經濟与件中 武器와 補給品生産 및 國際与件中 軍事協定關係는
制約条件속에 包含되어 있음) 그리고 戰爭 相對国(敵国)의 事情
軍事, 政治, 經濟, 外交, 社会包含)을 意味함.

6. 業 績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軍事에 있어서의 業績은 戰鬪行爲
가 없는 限 이를 直接 評價하기 困難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첫째로 部分的인 業績을 中心으로 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例를 들면 北韓의 對南韓 武装間諜 및 間諜船
의 派遣, 漁船拿捕의 경우의 交戰, 航空機潛行의 경우의 交戰等의
結果를 分析하는 方法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로 間接的인 尺度로서 앞에 言及한 制約条件의 分析을 通하
여 앞으로의 5年間의 變化傾向을 把握하고, 假想되는 戰鬪 또는
戰爭 型態別로 그 力量을 推定하는 方法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은 換言하면 軍事力量의 경우에는 우리가 提示한 Model에서 業績
分析을 通하지 않고 直接 予測分析으로 連結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目標構造의 內容으로 보아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戰略이나 戰術에 根拠를 두고 그것들을 얼마나 達成할수 있는가를 制約條件들과의 關聯下에 分析해야 할것이다.

附言할것은 軍事에 있어서의 業績分析은 本質적으로는 위와 같은 性質을 갖고 있으나 間歇적으로 있는 北韓의 對南侵透는 저들의 戰略, 戰術을 test하기 위한 行爲라고 볼수도 있음으로 이것들을 南韓側에서도 銳利하게 그의 效果性에 關하여 分析하는 努力을 傾注 해야 할것이다.

業績分析部分만을 除外하고는 Model이 對象으로 하는 未來5年部分에 관한 予測(分析)의 理論은 軍事力量 推定에도 그대로 適用할 수 있고, 또 妥當하다. 다만 이 경우 各項目別予測에서 制約條件予測業務에 가장 많은 比重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Issue 予測은 可能的한 武力對決構想을 型態別(例. 全面戰爭, 局地域, 遊擊戰 武裝間諜南派等)로 羅列하여 놓고 威脅 能力과 阻止能力을 推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7. 能 率 性

軍事에 있어서의 業績은 力量發揮 以前에 顕在化될수 없다는 條件은 能率性 分析에 있어서도 問題點을 提起한다.

왜냐하면 能率性이라는 것은 產出(業績)에 對한 投入의 比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間接的인 指標를 쓸수 밖에 없다. 이것은 주로 制約條件 속에 列擧된 各項目을 相互比較하는 것을 통하여 할것을 권고한다.

· 예를 들면 ①軍事予算의 增加幅에 비추어 본 軍事施設과 武器의 增加, ②維持管理費가 点하는 全体軍事予算中の 戰鬪兵力과 支援兵力의 比等이 좋은 例가 될것이다.

才九章 未解決의 問題와 建議

以上에서 우리는 力量比較의 一般模型을 作成하였고, 이를 政治, 外交, 軍事別로 適用하는 試圖를 하여 보았다.

이제 本結論章에서는 이런 模型의 實用化를 위하여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問題點들을 지적하고 Model의 使用에 관한 建議를 함으로서 本研究報告書를 끝 맺으려고 생각한다.

未解決의 問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위의 分野別 適用에 있어서는 指標까지 導出하였지만, 各指標마다 變數로 分割導出하는 作業이 남아 있다. 어떤 指標들은 쉽게 이 作業이 可能하지만, 反面 많은 指標들은 相當한 程度의 研究와 合意라는 過程을 要求하는 것들도 있다.

둘째 指標相互間의 交互作用關係 또한 變數相互間의 關係等은 本研究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事實 앞으로 남은 問題 가운데 가장 어려운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해에 걸쳐서 作業하면 大體的인 큰 畧程度가 떠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作業도 반드시 必要한 部分이다. 社会科学에 있어서 學者들이 一, 二個의 假說을 갖고 數年式 걸려져 研究하는 것을 감안 하면, 이 作業은 너무나 방대한 作業같지만, 實務家들이 長期間分析의 經驗과 洞察力에 依하여 判斷하는 것이 때로는 學者들의 嚴格한 推論보다도 더 妥當한때가 많다는 것을 強調해 두는 바이다.

세째로 綜合判斷의 必要에 關聯하여 생기는 比重의 問題이다. 南北韓이 어떤 Issue를 中心으로 볼때에 어느쪽이 더 「政治力

량이 많다」「外交力量이 많다」「軍事力量이 많다」等の 表現을 하고 싶은 것은 理論的으로나 實務的으로나 다 같이 느끼는 共通일 것이다.

이런 表現 또는 結論을 얻는다는 것은 서로 質이 相異한 各指標나 變數들을 하나로 묶어서 判斷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때에 두개 以上の 指標가 結合되면 어떤 새로운 效果가 나오는가는 앞에서 지적한 「指標間的 交互作用」의 知識이 供給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以外에도 指標마다 綜合判斷을 위하여 차지하는 位置의 輕重의 差異를 考慮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指標는 政治力量의 程度에 莫重한 影響을 주지만, 反面에 어떤 指標는 그의 影響력이 적을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指標(또는 變數)들에 대한 加重值 부여作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北韓問題와 政治, 外交, 軍事分野의 專門 知識을 保有하고 있는 자들이 集團으로서 評點하는 方法을 使用함으로써 開發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建議할것은 이 方面의 專門家養成의 時急性이다. 이들은 大體的으로 目標構造分析, 制約條件分析, 戰略戰術分析, 過程分析, 業績分析, 狀況分析, 能率性分析 등으로 分割 担当하던가 또는 政治, 外交, 軍事別의 單位속에서 이와 같이 分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사람이 長期間 그일에 從事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本研究의 對象과 같은 問題는 質的인 判斷을 要하는 側面이 매우 많음으로, 이들 專門家들이 集團으로 合意하여 決定하는

Expert Ranking Method 를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制度의 뒷받침이 없이는 南北間의 力量의 判斷은 언제나 重大한 誤判이거나 常識的結論의 어느 한가지가 되고 말것이다.